

캐나다 기업 에너지 자원개발 전문 자산운용사 한국증시 첫 노크

주관사 선정 상장절차 논의
英·필리핀 기업도 상장준비
국내증시 국적 다변화 탄력

캐나다 기업이 한국 증시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국적 다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캐나다 기업이 국내 증시를 노크하는 것은 처음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캐나다의 자원개발 전문 자산운용사 S사가 거래소와 상장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조만간 국내 증권사 D사와 상장주관사 계약을 맺고 상장 필요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S사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현지 증시 상장업체로 천연자원,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하는 에너지 자원개발 자산운용 금융그룹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캐나다의 자원개발 회사에 거래소와 한국 증시 상장, 상장 필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했다"며 "캐나다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것은 최초"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 준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장까지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에 캐나다 국적의 기업이 상장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은 코스피 4개, 코스닥 11개 등 총 15곳이다. 국적은 중국, 미국, 일본, 라오스로 국한돼 있다. 캐나다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면 상장사 국적 다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영국, 필리핀 기업 또한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 4개국에 한정된 국적이 7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상장사 국적 다변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와 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해외 기업은 4곳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7% 증가한 11개사다.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하는 해외 기업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신제윤 "사외이사 자기권력화 막겠다"

임기 1년으로 단축... 선임·평가 과정 개선 모범규준 마련
"지배구조 난맥상 금융실패 훼손" CEO 승계계획도 손질

앞으로 금융지주와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사외이사 선임 사유, 주요 활동내역, 개인별 보수, 평가 결과 등이 공시돼 이사회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우선 소유권이 분산돼 있는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사외이사는 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연임 감안한 총 임기는 5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은 현행처럼 3년(총임기 5년)이 유지된다.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 사유, 주요 활동내역 및 개인별 보수내역(일체의 경제적



의 포함, 평가 결과 등은 공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CEO 공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CEO 승계 계획도 구체화된다. CEO 승계 후보군 관리업무를 일회성(Event)이 아닌 이사회 상시업무로 명확히 한다. 이사회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과 절차로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 이사회가 총괄하고 세세하게 CEO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최근 일부 사례가 보여주듯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난맥상은 주주 가치와 해당 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사회가 자기 권력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임부터 평가,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할 것"이라며 "CEO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이사회가 CEO 승계를 누가, 언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할지 총괄하게 계획을 마련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내년 물가상승률도 1%대 전망 민간기관들 '디플레이션' 경고

정부·한은 예측보다 크게 낮아

상당수 민간기관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었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예측한 12개 민간기관 가운데 삼성증권 등 5개 민간기관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예측했다. 이는 기획재정부(2.3%)와 한국은행(2.4%)의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1%대 물가상승률을 전망한 기관은 삼성증권(1.5%), 우리금융경제연구소(1.8%), 하나대투증권(1.8%), 현대경제연구원(1.9%), K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보험연구원(2.0%)로 나타났다. 대신증권(2.3%)과 신영증권(2.3%), 포스코경영연구소(2.5%) 3곳만이 정부와 비슷한 수치를 내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로 24개월 연속 1%대에 머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저성장, 저물가 기조 장기화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 기관의 전망치도 높지 않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26개 해외 투자은행(IB)과 경제예측기관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2.2%다. 이들 중 9곳은 내년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1%대를 벗어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사랑의 온도'를 높여 주세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일 연말연시 이웃돕기 범국민 모금을 위한 '희망 2015 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전국 17개 시도지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20일 오전 관계자들이 사랑의 온도담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여의도는 지금 족지전쟁

의원들, 선심성 예산 깎아더라도 밀어넣기...혈세낭비 지적 속 '근절법'은 국회 낮잠

올해도 국회가 어김없이 '족지예산'의 오묘한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37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14조원가량 증액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0일 첫세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난 건 국회의원의 민원성·선심성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도로 및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다뤄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체의 절반 가량이 7~2000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소위가 이렇게 증액된 예산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소위 주변예산 예산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

다. 국회가 통상 정부 예산안에서 5조원 정도를 깎아 통과시킨 전례들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상임위를 거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잘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우리가 내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예산이 수백억원 깎일 위기여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의 비서관은 "심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다"면서 "예산 국회가 끝나면 지역구에 예산 관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전체 예산안 가

운데 1조원 정도를 의원들과의 '정치적 타협'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족지예산을 제도적으로 없앨 것이라든 여야의 다진 역시 공염불이 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족지예산 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6개나 계류 중이지만, 대부분 처리가 보류되거나 심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잠만 자는 실정이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올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정국에서도 족지예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의중 기자 zerg@

메타폴리스물 매각 포스코건설 700억 손해

포스코건설이 메타폴리스를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HMC투자증권에 1850억원에 매각한다. 차입금 상환을 위해 매각을 서두르다 보니 약 7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타폴리스는 경기도 화성시 반성동에 위치한 메타폴리스를 HMC투자증권에 처분키로 결정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각각 1만 6120.5㎡, 14만7022.2㎡ 규모다. 메타폴리스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메타폴리스 사업을 위해 2004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포스코건설(지분율 40.05%), 한국토지주택공사(19.90%), 팬퍼시픽(26.03%), 신동아건설(12.02%), 신한은행(2.00%) 등이 참여했다.

지난 2010년 준공된 메타폴리스물은 최고 66층의 초고층 아파트 4개동과 대형 복합쇼핑몰로 구성돼 있다. 메타폴리스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시장 가치는 약 2100억원이었으나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입금 상환 압박을 받자 시장가치, 분기보다 싸게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토지 장부가액은 724억원, 건물 장부가액은 1898억원으로 총 장부가액은 2622억원이다. 최종 매각액은 1850억원으로 결국 772억원의 차이를 손해를 본 셈이다. 하지만 메타폴리스물을 매각해도 상환해야 할 차입금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메타폴리스가 올해 상환해야 할 부채는 은행 1335억원을 비롯해 보증금, 공사비 등 2000억원 이상이다. 메타폴리스 관계자는 "메타폴리스물의 가격을 더 많이 받으면 좋지만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 가격이라도 처분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며 "값지 못하는 차입금은 민간 주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데이터 뉴스 Data News

'반기업 정서' 완화됐지만 직업선호도 '공무원'만 올랐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국민 호감도는 높아졌지만 희망 직업 1순위는 여전히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기업 및 경제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반기업정서는 지난해보다 완화됐지만, 정작 본인이나 자녀의 직업으로 공무원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작년 63%에서 올해 65%로 기업인에 대한 호감도는 51%에서 60%로 높아졌다. 또 전문 경영인에 대

한 호감도 역시 66%에서 79%로 올라갔다. '반기업정서가 강하다'는 응답은 63%에서 59%로 감소했다. 반면 직업 선호도에서는 공무원이 작년 34%보다 9%포인트 증가한 4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23%), 대기업 취직(15%), 자영업·창업(10%), 중소기업 취직(10%)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을 제외하면 중소기업 선호도 비중은 작년 수준을 유지했고, 나머지 직업군은 모두 선호도가 내려갔다. 조남호 기자 spdran@



목요일 17~21일
Life
커버스토리
분양 '핫 플레이스'

최창원 부회장 ▶ 2 진중섭 원장 ▶ 6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자사주 산 최길선·권오갑, 호재 예감?

〈현대중공업 회장〉

〈현대중공업 사장〉

각각 2억원 규모 사들여...회사 정상화·주가 부양 '강한 의지' 계열사는 KCC 등 보유주식 매각...경영진 지분가치 오를 듯

호재를 예감했을까.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것이 업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계열사들이 연이어 유가증권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면서 이들 경영진의 지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19일 최길선(사진 왼쪽) 회장과 권오갑(오른쪽) 사장이 각각 2억원 규모(1719주, 1721주)의 자사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현대중공업 주식 매입으로 기존 1582주에서 3301주로 보유 지분이 늘었다. 권 사장이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현대삼호중공업도 KCC 주식 80만3000주(7.63%)를 매각했다. 이를 통해 현대삼호중공업은 4368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됐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003년 11월 KCC의 주식을 1896억원에 사들였다. 현대삼호중

공업은 이번 매각으로 2.3배의 차익을 얻었다. KCC 주가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가 상장을 추진하자 최근 크게 올랐다.

하루 전인 18일에는 현대미포조선이 포스코 주식 87만2000주(1.0%)를 2600억원에 매각했다. 현대미포조선은 2007년 포스코 주식을 3487억원에 매입했지만 이번 매각을 통해 887억원의 차손을 입었다.

재무개선을 위해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나머지 KCC 지분과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차, 기아차 등 보유 중인 유가증권을 내다팔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타 회사와의 백기사 관계를 청산하며 지분 매각에 나선 것은 부채 비율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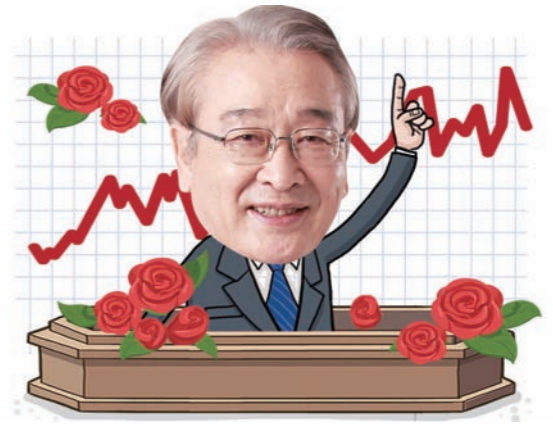
이 회사의 9월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20.4%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상반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197.7%였지만 한 분기 만에 20% 이상 치솟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고경영진의 주식 매수에 대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두 최고경영자가 주식매수를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중공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잇따른 유가증권 매각은 주가 부양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 회장과 권 사장의 지분 가치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이순재 '꽃보다 주주' '아이디엔' 유증 참여



인터넷 업종 코스닥 상장사 제약사업 진출... 실탄 마련 최대주주 견미리 씨와 친분 1억원어치 5만주 취득 예정 연예인 45명도 동참해 주목

상호를 '보타 바이오'로 변경하고 사업 목적에 신약 개발,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이디엔은 의약품 개발과 천연물 신약개발을 하는 보타메디에 30억원 이상을 출자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다만 이순재씨 등 연예인이 대거 출자에 나선 아이디엔이 과거 잦은 업종 변경으로 수익성 악화로 시달렸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꽃보다 할배' 이순재씨를 비롯한 다수의 배우들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펼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디엔의 유증증자에 참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아이디엔은 이번 유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제약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2005년 휴대폰 케이스로 탄탄한 실적 기록하던 아이디엔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손을 대면서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아이디엔은 2007년 김종학프로덕션에서 자산양수도를 통해 독립한 기업인 스타케이를 인수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에 나섰다. 2008년 매출 8억원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사업을 접었다.

이후 아이팝미디어에서 엔터테인먼트 포털사업(80억원), 디지털네임즈에서 인터넷 키워드 및 검색서비스 사업(50억원)의 영업권을 양수하며 다시 한 번 업종변경에 나섰다. 계속해서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 38억원과 영업손실 17억원, 당기순손실 32억원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견씨를 비롯한 다수 연예인의 출자와 신규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견씨가 주요 주주 유증증자에 참여한다고 알려지자 주가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유증증자 소식이 알려진 3일 2485원으로 시작한 주가는 나흘 연속 상승가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 18일 장중 5440원을 터치

아이디엔은 이 자금을 활용해 신규로 제약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열어

2005년 휴대폰 케이스로 탄탄한 실적을 기록하던 아이디엔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손을 대면서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아이디엔은 2007년 김종학프로덕션에서 자산양수도를 통해 독립한 기업인 스타케이를 인수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에 나섰다. 2008년 매출 8억원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사업을 접었다.

이후 아이팝미디어에서 엔터테인먼트 포털사업(80억원), 디지털네임즈에서 인터넷 키워드 및 검색서비스 사업(50억원)의 영업권을 양수하며 다시 한 번 업종변경에 나섰다. 계속해서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 38억원과 영업손실 17억원, 당기순손실 32억원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견씨를 비롯한 다수 연예인의 출자와 신규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견씨가 주요 주주 유증증자에 참여한다고 알려지자 주가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유증증자 소식이 알려진 3일 2485원으로 시작한 주가는 나흘 연속 상승가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 18일 장중 5440원을 터치

아이디엔은 이 자금을 활용해 신규로 제약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열어

www.kogas.or.kr

SK가스 지분 판 최창원, 400억 벌었다

〈SK가스 부회장〉

개인 지분 6% 전량 처분...매입 3년반만에 3배 가격에 팔아 대표로 있는 SK케미칼 등 지분을 55%...지배력엔 변동없어

최창원(사진) SK가스 부회장이 보유 지분을 모두 팔아 3년 반 만에 400억원의 차익을 얻게 됐다. 지분을 전량 매각한 이후에도 SK케미칼을 통해 SK가스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한다는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19일 장 마감 이후 보유 지분 53만3280주(지분율 6.12%)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키로 하고 국내외 기관 투자가 모집에 나섰다. 매각 가격은 이날 종가 13만3000원 대비 5.3~8.3% 할인한 12만2000~12만6000원이다. 블록딜이 성사되면 최 부회장은 651억~672억원을 손에 쥘다. 매각 주관은 UBS가 맡았다.

최 부회장은 2011년 4월 시간외 매매를 통해 SK가스 주식을 주당 4만1500원, 총 219억원에 매수했다. 3년 7개월 만에 3배

수준의 가격에 파는 셈이다. SK가스는 최 부회장의 주식 매입 직후부터 2012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3년에는 주가가 다소 횡보했으나 2014년 들어 연초 대비 80.2% 급등하며 최 부회장의 지분가치도 눈덩이로 불어났다.

최 부회장이 SK가스 주식을 매수할 당시 증권가에 SK케미칼과 SK가스의 합병설도 제기됐다. 차후 SK케미칼이 SK가스를 흡수 합병할 경우 최 부회장의 SK가스 지분은 SK케미칼 주식으로 변경돼 결국 SK케미칼 지분을 사들인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 부회장은 SK케미칼과 SK가스를 합병하지 않고 장기적 신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최 부회장은 공격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주로 에너지산업에서 성장동력을



모색했다. 올해 들어 발전과 가스화학·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M&A를 연이어 성사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SK가스는 지난 10월 1507억5000만원

을 투자해 1160MW급 석탄화력발전소인 동부발전당진의 경영권을 전격 인수했다.

이어 SK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 회사 APC와 합작법인을 설립, 이달 15일 울산에서 1조원 규모의 가스화학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 공장은 2016년 상업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LPG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다.

올 4월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인 고성그린파워의 지분 19%도 인수했다. 업계에서는 최 부회장이 맡은 지 5년도 안 돼 LPG 수입업체이던 SK가스를 미래형 화학기업으로 변모시켰다고 평가한다.

최 부회장은 SK가스의 사업 확대를 위해 자회사인 SK D&D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SK D&D 지분 38.8%(51만 7000주)를 보유 중인 만큼 향후 지분가치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SK케미칼(지분율 45.54%)과 최 부회장, 특수관계인이 보유 중인 SK가스 지분율은 55.55%로 여전히 과반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국민행복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과 함께 달립니다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가꾸어온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기술개발 협력사례 ①

고성능 해수가열기 / (주)강원NTS

(주)강원NTS가 국산화 기술개발에 성공한 '고성능 해수가열기'는 LNG 생산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산 기자재 수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삼성중공업·엔지니어링 합병 '없던 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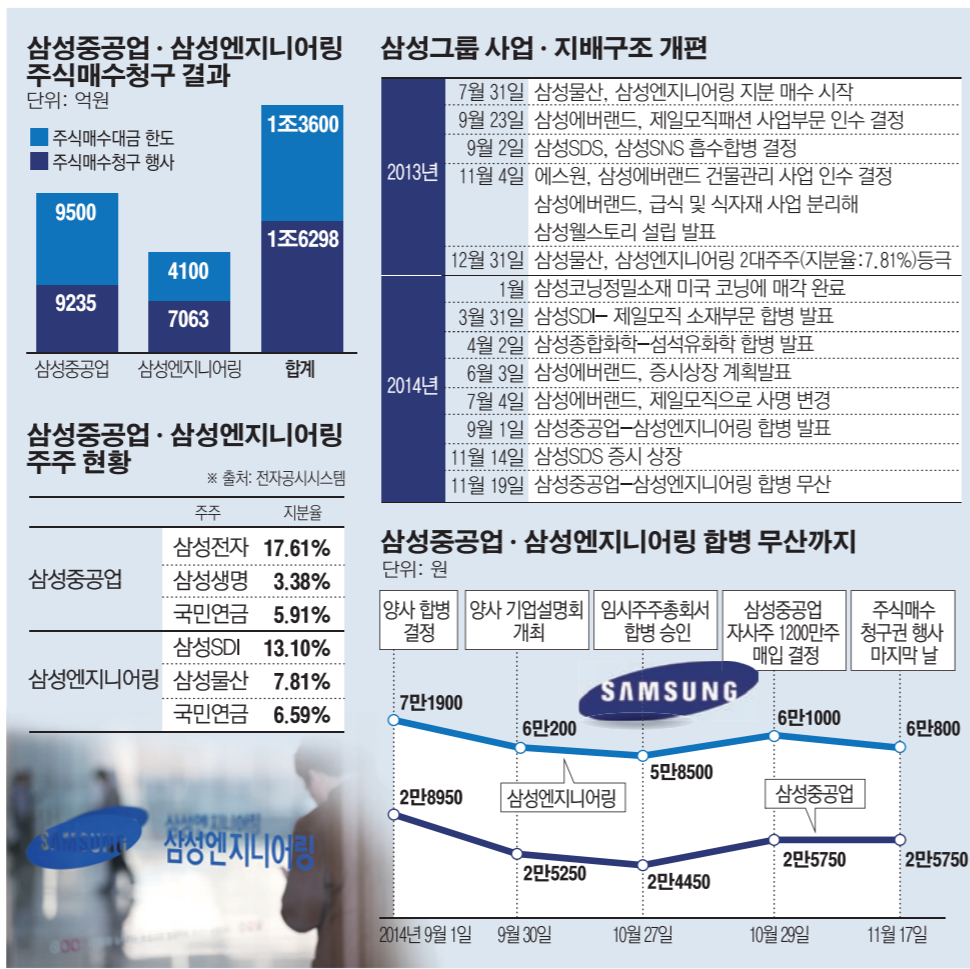
초일류 종합플랜트 꿈 '암초'에

중반에 접어든 삼성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작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삼성중공업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주총회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해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주총회 규모는 합병, 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는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은 각각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받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17일까지 주주총회 규모가 두 회사가 제시한 한도를 넘어섰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주총회 규모는 각각 9235억원, 7063억원으로 두 회사가 정한 매수대금 1조3600억원보다 약 2600억원을 초과했다.

“재무상황 악화로 주주피해 우려”
국민연금·개인 주주 등 합병 반대
주주총회 규모 1조36298억 행사



중반 접어든 그룹재편 차질 불가피
내년 사업계획도 다시 짜야 할 판
오일기가 지분에는 큰 영향 없을 듯

그룹 사업 구조 개편이 전자, 중화학 등 지나 건설·중공업 부문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으로 건설·중공업 부문에 대한 구조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증권가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 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건설 부문까지도 재정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합병 불발로 당장 내년 사업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육상과 해상'을 모두 아우르는 초일류 종합플랜트 회사로의 도약을 공언해왔다. 오일메이저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육상과 해상 모두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것.

삼성중공업은 합병을 통해 삼성엔지니어링의 감성 분야인 '설계·구매·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확보, 해양 플랜트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호주 의시스 CPF(30억 달러), 나이지리아 에지나 FPSO(30억 달러) 등 이번 합병 불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합병 불발로 인한 삼성그룹 오일 기기의 지분과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오일 기 보유 지분은 없다. 더불어 두 회사는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에도 포함되지 않은 계열사다.

장효진 기자 js62@

'증시 큰손' 국민연금 보폭 넓히나

자본시장법 개정 앞두고 적극적 행보
배당확대 요청·주주권 행사 강화 나서
시총 상위종목 지분 많아...재계 '축각'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향후 국민연금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당 확대는 물론 기업간 인수합병에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자 투자업계와 재계가 이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19일 공시를 통해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흡수합병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 주요 주주가 행사한 주주총회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넘어서면서 합병 무산을 결정했다. 주주총회 규모는 회사의 합병과 인수 등 주요 결정 사항에 반대해 주요 주주가 소유주식의 '공정가격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국민연금 행보에 관심이 기울이는 이유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상장사 투자 규모의 6~7%가 국민연금의 몫이다. 그만큼 재계에 보이지 않는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의 7.7%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차(7.6%)와 SK하이닉

스(9.3%), 포스코(7.5%), LG화학(9.1%), KB금융지주(10.0%)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의 지분을 쥐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견회 회장의 지분보다 국민연금 보유분이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이다. 11월 안에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다.

주주권 행사제약 요소가 사라지면 국민연금은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기업에 배당 강화를 요청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규모 투자금의 이동도 점쳐진다.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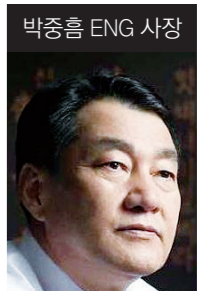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략실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단순하게 재무적투자자 역할에 머무르지는 않게 된다"며 "연금이라는 특성에 맞춰 점진적으로 수익 확대를 위한 행보도 시작됐고 이를 위해 최근 자산 운용 전문가 채용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 약 6%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배당 수익은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구상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박대영 중공업 사장

실점한 구원투수 박대영·박중흠 “연말 인사 어찌나”



박중흠 ENG 사장

최지성 실장이 지난달 직접 불러 당부...임원 인사 앞두고 긴장

삼성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해왔다. 삼성SDI와 제일모직, 삼성중화학-삼성석유화학은 합병됐으며 삼성SDS는 지난 14일 거래소에 상장했다.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진행된 삼성그룹의 구조 재편이 차질을 빚은 것은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무산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이번 합병 무산은 열을 앞으로 다가온 삼성그룹의 사장단 및 임원 인사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인 기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지난달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을 불러 주가 관리와 실적 개선을 당부했다. 합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박대영 사장과 박중흠 사장은 지난 9월부터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업설명회를 열어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에 대해 홍보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주가 관리에도 실패했다.

박대영 사장과 박중흠 사장 모두 구원투수 역할이었던 것도 공통 분모다. 박대영 사장은 2012년 말에 삼성중공업 사장에 올랐으며 박중흠 사장은 지난해 8월 엔지니어링의 사장에 올라 회사의 체질

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 합병 무산은 '구원투수가 실점을 해 팀을 패배로 이끈 것'이란 비유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박대영 사장과 박중흠 사장은 삼성중공업에서 30년 이상 함께 일했다. 이번 합병 실패를 두고 책임을 묻는다면 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실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향력 확대에 제동이 걸린 측면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 아래 있는 삼성전자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법인의 최대주주(12.5%)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임원진도 연말 인사를 앞두고 그 어느 계절보다도 긴장하고 있다. 합병 실패란 큰 짐을 진 데다 실적 부진은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삼성중공업의 임원은 120여명, 삼성엔지니어링은 110여명 수준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인사 원칙 중 하나가 신상필벌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합병 무산과 실적 부진은 큰 약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PARADISE

2017년, 파라다이스시티

대한민국 최초 글로벌 복합리조트가
오늘 영종도에서 첫발을 내딛습니다

Football Manager
Jose Mourinho
축구감독 조세 무리뉴

2017년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비즈니스 허브가 될 대한민국 최초 글로벌 복합리조트(파라다이스시티)

• 첨가계 객실의 특급 호텔 · 유니크한 부티크 호텔 · 외국인 전용 카지노 · 다양한 스타일의 레스토랑 · 가족여행을 위한 놀이시설 · 대형 명품 쇼핑몰 · 동서양 퓨전 스타일 스퀘어 ·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시설

푸틴 만남 北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18일(현지시간) 크렘린궁을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FTA 타결하고, 이제서 “대책 마련”

하대통령 주재 토론회 열고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할 것”
농식품부도 농협협의 개회
정부·지자체 연계 대책 부심

부처 및 지자체별 FTA 대응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한중FTA 관련 연말 가세명 후 국내 산업별 피해 분야 대책 마련 추진
산업통상부	통상국대대백반을 통한 대책 마련
농식품부	지자체와 공동대책 마련, 피해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지원
충청남도	2018년까지 4조7000억원 투입 농업기반 강화
전라남도	저비용 고속도로 농업구조 전환 위한 자구책 마련
경상북도	FTA 특별대책팀 구성, 농산물 가공을 위한 6차 산업 기획
경상남도	농업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중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달아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처와 지자체별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 19일 안성 팜랜드에서 농업 미래 성장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중 FTA,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또한 “한중 FTA는 해야 할 일이지만 타결로 덕을 보는 산업이 있고 어려워지는 산업이 있다”며 “어려워지는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에 우리 당에서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피해 범위가 넓을 것으로 전망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대응전략에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농식품부의 경우 한·중 FTA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농수축산식품 분야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5개도 농정국장과 11개 시도 농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협의회를 열고 지자체가 세운 대책을 정부 대책과 연계해 FTA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을 논의했다.

이와 농식품부 안팎에선 기존에 거론됐던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FTA기금에 대기업의 기부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한중 FTA의 연말 가세명 이후 약 4-5개월 동안 농수산업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산업별 피해 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기존의 통상대책반을 통해 대안 마련과 문제점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에서는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한·중 FTA 이후 대(對)중국 비관세 수출 증가에 따른 중국의 무역기술통관(TBT)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히 호주, 뉴질랜드 등 쇠고기 수출강국과 FTA를 체결한 만큼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측은 “국내시장에서 FTA 관련 “축산업 분야에서 대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국내시장에서 수입 쇠고기 간 가격경쟁이 심화해 한우 가격에 물론 쇠고기의 대체제인 돼지·닭고기 가격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부실 中企 125곳 구조조정

경기회복 지연에 실적 악화
워크아웃 대상 C등급 54곳
법정관리 D등급 71곳... 13곳 ↑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 기록

가 2012년(97곳) 감소세를 보인 뒤 최근(2013년 112곳)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54곳)은 지난해와 같고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71개)은 전년 대비 13곳 늘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어나면서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부담도 커졌다. 9월말 기준 구조조정 대상 선정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총 1조 4069억원이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은행권은 약 4854억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9월말 기준 은행들은 2328억 원을 적립했으며 향후 2526억원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향후 B등급 중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 기업인 경우 ‘패스트리프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들의 자금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C등급 기업에는 자산부채 실사 및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등 워크아웃을 조속히 추진토록 지도하고 D등급 기업은 채권 금융회사의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kimmi@

올해 125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구조조정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된 탓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125곳으로 전년 대비 11.6%(13개) 증가했다. 앞서 채권은행은 지난 7-10월 신용공여합계액이 500억원 미만의 기업 중 개별은행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1만 6994개)을 대상으로 정기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구조조정 중소기업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12곳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0년 121곳까지 늘었다

국제노사정컨퍼런스 환영사 하는 김대환 위원장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ILO-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동 컨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금연예산 1521억 책정에 野 “224억만 쓰자” 제동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전제로 한 정부의 새해 금연 관련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폭 깎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2억7700만원이 투입된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내년엔 152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13.4배 늘어난 규모로, 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올해보다 7682억원 많은 2조3362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책정한 예산이다.

그러나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정부안에서 1297억원을 삭감, 올해의 두 배 수준인 224억원만 편성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같은 당 박완주 예결위원 역시 “지속적 혐오광고 등 과도한 금연홍보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금연홍보 예산, 과다 추계된 저소득층 금연치료 예산 등 214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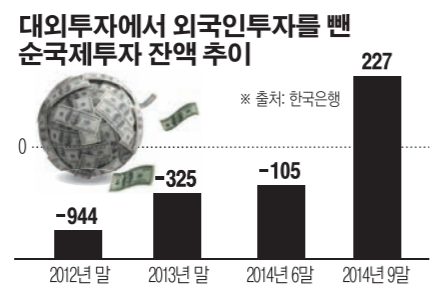
야당은 우선 정부가 ‘부자감세 철회’ 없이 담뱃값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지만, 내용상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15가지 정도의 새로운 세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254억원 중 심신 금연지원서비스 54억원 △대학교금연지원 56억원 △미취학아동금연교육 20억원 △학교밖 흡연예방 51억원 △여성특화금연지원 10억원 등 여성가족부나 교육부 등 다른 부처와 업무가 겹치거나 복지부 자체의 건강증진사업 내 금연사업과 예산이 중복되는 사업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으로 이 사업 예산이 확대 편성된다 해도 사업 효율성을 위해선 세부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미영 기자 bomnal@

순 국제투자 잔액 227억 달러 통계작성 20년만에 첫 플러스

원화 가치 하락 영향 커
단기외채 0.4%P 감소



한국의 순국제투자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한국의 대외투자는 1조515억 달러로 3개월 전보다 102억 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31억 달러 감소한 1조 288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대외투자에서 외국인투자를 뺀 순국제투자잔액은 227억 달러로 관련 통계 작성시 시작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말 순국제투자잔액은 -105달러로, 한국은 3개월 전까지는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내국인의 대외투자보다 항상 많았다.

한국의 순국제투자잔액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내국인의 대외투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원화 가치 절하 등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만기 1년 이하인 단기외채는 57억 달러 줄어든 1261억 달러로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로써 전체 대외채무(4221억달러)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3개월 전보다 0.4%포인트 감소한 29.4%로 집계됐다. 이진영 기자 mint@

올 세수 결손 10조... 재정당국 비상

9월까지 세수진도율 70.5%
작년보다 5%P 떨어지
기금 여유자금 등 활용
부처 결산경비 절약 독려

1-9월 국제수입 및 세수 진도비

	13년			14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A)	결산(B)	진도율(추경) (D=C/A)	추경(E)	결산(F)	진도율(결산) (H=G/E)	증감(G-C)	진도율(추경) (H-D)	진도율(결산) (H-E)			
◇ 국제수입	210.4	201.9	152.3	72.4	75.5	216.5	16	152.6	70.5	0.2	△1.9	△5.0
○ 일반회계	202.9	195.4	147.5	72.7	75.5	209.3	15.7	148.3	70.9	0.8	△1.8	△4.6
- 소득세	49.8	47.8	34.3	68.8	71.7	54.4	3.3	38.1	70.1	3.8	1.2	△1.6
- 법인세	46	43.9	37.2	81	84.9	46	6.4	36.3	78.9	△0.9	△2.0	△5.9
- 부가세	56.6	56	40.5	71.6	72.4	58.5	2.3	39.9	68.3	△0.6	△3.3	△4.1
- 교통세	13	13.2	9.9	76.5	75	13.5	1.4	10	74.3	0.1	△2.2	△0.7
- 관세	10.3	10.6	7.5	72.8	70.7	10.6	0.8	6.2	58.3	△1.3	△14.4	△12.4
- 기타	27.2	23.9	18.1	66.6	75.7	26.4	1.5	17.8	67.6	△0.3	1	△8.1
◇ 특별회계	7.5	6.5	4.8	63.9	73.5	7.2	0.3	4.2	58.6	△0.6	△5.2	△14.9

※자료: 기획재정부

올 들어 9월까지 세수 결손의 속도가 8조 5000억원 규모의 세수 편차가 났던 지난해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 부족액이 10조원선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재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세수결손을 해결하고자 기금의 여유자금이나 예비비 잔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지난해와 달리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려고 인위적 불용은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또 각 부처에 사업비 감축을 지시하지 않는 대신, 자율적으로 경감경비를 아껴 쓸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1월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제수

입은 15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세수진도율은 결산 기준 지난해 9월 75.5%이던 것이 올해 9월에는 70.5%로 무려 5.0%포인트나 떨어졌다. 8월의 세수진도율을 격차인 4.7%포인트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커졌다. 이는 8조5000억원의 세수 편차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세금 징수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의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올해 세수 편차 규모가 지난해 수준이 될 전망이다이라고 언급했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세수 부족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목별로 보면 환율 영향으로 관세가 1조3000억원 줄어 진도율이 12.4%포인트나 하락했으며 법인세와 부가세, 소득세 진도율도 1년 전보다 각각 5.9%포인트, 4.1%포인트, 1.6%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수준의 세수 편차에 당장 정부 발동에 불이 떨어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는 세수가 부족해 불용이 많았지만 올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가 있어 인위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된 중”이라고 밝혔다.

전민정 기자 puri21@

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면받고 ‘말 바꾸기’ 못한다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재판에서 잘못을 부인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하고 보완하는 한편 법원 판결 내용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이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자진신고를 하고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 따른 것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

‘영터리 예보’ 기상청, 또 수백억 예산증액 시도

매년 예산을 늘리고도 있던 오보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기상청이 올해 또 다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국회 예결위까지 추가 증액에 동참하면서 기상청이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 따르면 기상청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4억7100만원 증액해 책정했으며, 예결위에서 여기에 추가로 130억원을 올려 총 210억원이 증액됐다. 기상청은 지난 2012년 29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난해

3188억원, 올해 3490억원으로 액수를 매년 늘려 왔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업은 총 7건이며 주로 기상연구와 장기예보 시스템 구축비 관련항목이 큰 폭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선 재해기상연구센터 설립 운영사

기상연구·장기예보 시스템 구축 청사 신축비까지 총 210억 책정

업의 경우 독립청사 신축에 무려 50억원이 추가됐고,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사업에도 전용기상대 내 천문기상과학체험시설 구축을 단지 조기 완공시키겠다는 명분으로 30억원 추가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n@

공금을 내돈처럼, 유명회사까지 버젓이

줄어들지 않는 공공기관 배임·횡령 비리 백태

장애인 보조금 가로채고,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연구비 받아
국민권익위, '횡령액 수배 배상' 징벌적 부가금 징수법 추진

공공기관의 자금유용과 관련된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적 비리 차단을 위해서는 '징벌적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19일 경륜·경정·스포츠토도 사업 등을 운영하는 정부 산하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인자금을 뺏겨온 채로 배내 쓴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정정택(69)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인과 체육계 관계자 수백명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명절선물 등으로 보내 법인자금 2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모(47) 전 상생경영팀장도 함께 입건해 구속했다.

김 전 상생경영팀장은 거래업체를 시켜

납품 단가나 수량을 부풀리거나 허위권적서를 제출하게 한 뒤 계약이 이뤄지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3년간 법인자금 1억1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자금이 횡령범죄 대상이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지난 18일에는 양구군청 소속 공무원 A(36)씨가 공공통장에서 8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공공통장에서 조기협상 포장재, 유기질 비료 지원 등 명목의 보조금 8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0일에는 장애인 보호와 직업재활 시설에 쓰여야 할 국가 보조금 1억3000만원을 횡령한 보호시설 운영자 등이 경찰에 검거된 사례도 있다.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이모(58)씨 등 6명은 사무장과 공모해 외국에 사는 아들·조카·지인 등 4명

최근 주요 공공기관 자금유용 범죄 사례

사건	범죄수법	액수
국민체육진흥공단 전 상생경영팀장 법인자금 횡령	납품단가, 허위권적서 제출한 뒤 계약이 성사되면 차액을 돌려받음	1억1600만원
양구군청 공무원 보조금 유용	공공통장에서 조기협상 포장재, 유기질 비료 지원 등 명목의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8000만원
장애인시설 국가보조금 횡령	외국에 사는 아들·조카·지인 등을 사칭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1억1000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업비리	연구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사업을 따낸 뒤 정부출연금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	9억4000만원

과 퇴사한 직원 1명을 시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억1000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뿐만 아니다. 지난 8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비리는 뇌물거래와 횡령범죄를 위해 페이퍼컴퍼니까지 세운 사례다. 당시 성모씨는 연구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RFID 기반 전자기기 생산공정관리 체계 구축' 과제를 따낸 뒤 정부출연금 13억4000만원 중 9억4000만원가량을 공작 증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에게 사업권을 주고 뇌물을 받았던 연구원 3명은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IT업체로부터 하청을 받는 것처럼 문서를 꾸민 뒤 이를 진흥원에 제출하

는 처벌함을 보였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공적자금 관련 범죄가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공재정 허위·부정징구 등 방지법'을 준비 중이다.

이 법은 허위자료 제출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의 범죄가 적발되면 횡령금액 환수는 물론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 혐의를 밝혀내도 부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 470건 가운데 270건(57.4%)이 보조금 횡령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좌영길 기자 jyg97@

알리바바 부사장 배임 혐의 국내 협력업체에 고소 당해

협력사 "고객정보·설계도 빼돌리고 계약해지... 50억 손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닷컴'의 부사장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국내 협력업체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알리바바닷컴의 국내 협력업체인 E사는 19일 알리바바닷컴 아시아 총괄 책임자인 티모시 텡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티모시 텡 부사장은 알리바바닷컴 한국 대표(47)씨와 E사 간부 유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E사의 고객데이터와 CRM프로그램 설계도 등 영업비밀과 핵심인력을 빼돌린 뒤 일방적으로 E사와 계약을 해지해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게 E사의 주장이다. E사는 알리바바닷컴이 E사의 직원인 티모시 텡 등을 새로운 파트너로 받아들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

고 제안한 뒤 이들이 운영하는 새로운 업체의 설립비용 일체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닷컴과 한국 내 판매대리점 사업을 해온 E사는 2012년 상반기 전세계 대리점 중 실적 1위, 흑자전환 등 성과를 거뒀지만 같은해 9월 알리바바닷컴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국내 협력업체와 독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사업을 가로챈 혐의로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 배모(47)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배수와 함께 따로 회사를 차린 유모(40)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좌영길 기자 jyg97@

인구론·돌취생·열정페이... 올 채용 신조어 아시나요

취업포털 사람인은 19일 올해 채용시장을 반영한 신조어로 '인구론·돌취생·열정페이' 등을 꼽았다.

인구론은 이공계 선호 기업 증가를 반영한 신조어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취업통계연보를 보면 인문계열 졸업자의 취업률은 45.9%로 공학계열(66.9%), 자연계열(55.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취생은 입사한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취업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킨다. 사람인은 지난 1년간 신입사원 채용 기업 31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한 사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월급으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열정페이'라는 단어도 올해의 채용시장 신조어로 제시됐다. 사람인은 '열정이 있으면 돈은 필요 없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일부 기업이 국가기관, 사회적 기업, 인권단체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거창한 자소서를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정하는 '자소서', 취업이 늦어져 벌린 등록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실신' 신조어도 소개됐다. 하유미 기자 jscs508@

'3조2000억 사기 대출' 모뉴엘 사실상 청산 수순

3조2000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고 지난달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이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최근 모뉴엘에 내린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법원은 모뉴엘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모뉴엘의 재산은 물론 박홍석 모뉴엘 대표의 재산까지 강제 집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해 일부 초·중·고교에 급식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시 교구청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 오늘·내일 총파업 방학기간 생계보장·근속인정 상한제 쟁점

조합원 6만여명 중 2만여명 참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1일 전국 규모 총파업에 돌입한다.

19일 연대회의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 소속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2만여명이 이번 총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에서는 조합원 중 20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한다.

연대회의는 정부를 상대로 정액급식비 도입, 방학 기간 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생계보장 대책 마련, 근속인정 상한제 폐지, 3만원 호봉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는 이들 중 60~70%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파업 기간 동안 학교 급식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초등학교 101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3개교, 특수학교 3개교 등 총 135개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며, 초등학교 62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83개교가 급식 중단에 걸렸다.

전남도에서는 도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7599명 중 1076명이 파업에 참가해 유·초·중·고교 869곳 중 359곳에서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되는 학교는 144곳이다.

충북도에서는 도내 480개 초·중·고와 특수학교 가운데 44곳에서 급식 차질을 빚

을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교육청은 파업으로 급식이 불가능할 경우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빵이나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속수업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반면 경기·광주·대전교육청은 노조의 교섭에서 급식비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들 3개 지역 노조원들은 총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강원지역에서도 강원교육청이 급식비 8만원 지급안을 제시해 20일 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파업에 참가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실 근무자 외에 교무보조, 전산보조, 사무·행정보조, 초등돌봄 전담사, 특수교육보조, 전문상담사 등이다. 유혜은 기자 euna@

파업·시위에 CEO 고발까지... 이통3사 몸살

이동통신 3사가 노조의 파업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노조가 19일 서울 중앙위원장과 12개 지방위원장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원 중 일부는 사측이 민주파 노조원의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해 선거공고를 기습적으로 하고, 조합원들에게 회사측과

가까운 후보를 추천하도록 추천서를 '싸늘' 이했다며, 지난 4일 황창규 회장과 임직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2일부터 이와 관련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센터 비정규직 노조가 19일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에 따르면, 총 파업의 시발점은 지난달 21

일 LG유플러스 전주 고객센터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이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다.

SK텔레콤은 분사 앞에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직원들의 노숙 농성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달 6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1500여명은 각 센터가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거나, 유명회사를 만들어 발령을 낸 뒤 폐업을 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외세끼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재 기자 psj@

“현오석,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에 별도 사무실비로 연 4700만원 써”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임 시절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정부 서울청사가 아닌 별도 공간을 회의실로 사용하면서 한해 4700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전 부총리의 재임 시절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재부가 서울의 예금보험공사 집무실 사용료로 지급한 돈이 47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세종시로 이주한 기관의 기관장들이 서울에서 집무할 경우를 대비해 광화문 서울청사에 별도로 집무 공간을 마

련해 제공하고 있다. 청사 8층의 사회부총리(예정), 9층 국무총리, 10층 경제부총리 및 세종시 이전부처 장·차관 집무실로 작게는 124㎡(부총리), 많게는 1410㎡(국무총리) 면적의 공간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현 전 부총리는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정부에서 충분한 별도 공간을 제공하는데도 국민세금으로 불필요한 공간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하는 건 기재부의 특권적”이라며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할 부처가 모범을 보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bomna@

‘새내기주’ 주가조작 무더기 적발

신규 상장예정 주식 확보한 뒤 2배로 매수주문 투자자 유인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6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의 자선운용사 권드메니저, 애널리스트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상장법인 2개사에 대해 총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기로 결정했다.

증권위에 따르면 이들은 신규 상장예정 주식을 일반공모 청약의 통해 확보한 뒤 상장일에 공모가격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대량의 매수주문을 하는 수법으로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했다. 이후 매수 주문을 취소하고 동시에 보유주식을 전량 고가에 매도해 18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다. 또한 거래량이 거의 없고 호가가 최저가에 근접한 주식위탁증권(ELW) 종목을 대상으로 매수한 뒤 가장·통제에 맞춰서 매수주문을 통해 거래를 유발시키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억8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상장법인 A 대표이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경영이 악화돼 자금난에 시달리자 이전에 재직했던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다.

상장법인 B 대표도 감사보고서에 ‘거절’ 정보를 미리 알아내고 저사 주식을 주식담보대출 형식으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한 뒤 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주식을 매도하도록 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2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문선영 기자 moon@

국민안전처 출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출범한 19일 정중원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층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인천하늘바다해상경비안전센터 박경규 경감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지주 외국인 배당 4년간 3조

6대 금융지주 배당액 63% 차지
SC·씨티 외국인 지분율 100%
신한·하나도 60~70% 육박
외국계 금융사 사회공헌 절감
관행적 고배당 국부유출 논란

주요 금융지주 배당 성향 단위: 원, KB금융만 현금배당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KB	당기순이익	2199억	2조2865억	1조7401억	1조2637억
	배당액	411억	2781억	2318억	1931억
신한	당기순이익	2조8594억	3조2726억	2조4919억	2조5959억
	배당액	5862억	6321억	4175억	4001억
우리	당기순이익	1조6006억	2조4332억	1조8476억	(-)7134억
	배당액	2015억	2015억	2015억	
하나	당기순이익	1조4459억	1조3031억	1조7291억	9929억
	배당액	1465억	1446억	1084억	1157억
씨티	당기순이익	2050억	4412억	2366억	2400억
	배당액	799억	875억	623억	334억
SC	당기순이익	3027억	2706억	1432억	903억
	배당액	1000억	810억	120억	

저성장·저금리 기조 속에서 극심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금융지주들이 4년간 외국인 주주들에게 3조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국내 금융지주들이 관행적인 고배당을 실시해 국부 유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우리·신한·하나·SC·씨티 등 6개 금융지주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조4645억원을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했다. 이중 2조8283억원(63.4%)은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그동안 거둔 이익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같은 기간 금융지주가 거둔 당기순이익은 28조539억원으로 평균 배당성향은 15.7%에 달했다.

문제는 외국인 지분 비중이 높은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매년 고배당 시도를 둘러싸고 국부 유출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SC와 씨티를 비롯해 하나(70.1%), 신한(64.5%), KB(63.5%)도 외국인 지분율이

60~70%에 이른다. 여기에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인 배당성향도 타 산업군에 대비 높은 편이다. 같은 기간 실적 기준으로 신한금융지주는 배당성향이 16.8~20.5%를 나타냈다. KB금융지주는 11.3~18.7%, 하나금융지주는 6.3~14.0%였다.

비금융 주요 상장사 가운데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에 배당성향이 6.9~12.0% 수준이었다. 현대자동차 9.9~11.9%, 네이버 1.1~5.0%, 포스코 18.3~40% 등으로 포스코를 제외하면 금융지주사보다 배당성향이 낮았다.

금융권의 고배당 문제는 최근 SC은행을 중심으로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올해 1~3분기 4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SC은행은 1조2000억원의 주주 배당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점을 감안하면 전액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의미다.

그 동안 SC은행은 배당성향이 29.9~83.8%에 달해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에 외국계 금융사들이 고액의 배당을 챙기면서 사회공헌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SC은행의 사회공헌비 지출은 161억원에 그쳤다. 시중은행은 물론 부산은행(340억원)이나 대구은행(244억원) 등 지방은행 보다도 규모가 적었다. 이 기간 씨티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지출 금액은 110억원으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사의 고배당을 제한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금융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C은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배당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자본적정성 유지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조용하게 개혁... 상시감시 강화”

진용섭 금융감독원장 취임, 건전성 감독 강조



실시된 면책제도의 실효성 강화, 직원 제재의 금융회사 위임, 감사·제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 역량 강화를 유도해 기술금융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용섭(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향후 상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19일 금융감독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금융산업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에 너무나 중요한 직책을 맡아 조심스러움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 금융시스템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해 상시감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단기적인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편승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의 자금이 특정 금융상품에 집중되는 율현상에도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금융이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부

진 원장은 또 감독 관행의 개선을 바라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금융회사를 감독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금융 발전을 위해 서로 돕고 상생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진 원장은 마지막으로 "촉한의 재갈량이 쓴 계자서(戒子書)에는 '담박명지 영정치원(澹泊明志 寧靜致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해야 뜻을 밝게 가질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야 포부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라며 "조용하고 차분하게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kimji@

신한은행, 청소년에 금융 교육기부



신한은행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교육기부 활성화 및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진로 직업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현장(왼쪽에서 두번째)과 황우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 진로직업 현장체험 중인 학생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하나은행 호찌민 지점 내년 문연다

사무소 운영 7년만에 내인가 받아

하나은행이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호찌민 지점 설립을 위한 내인가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호찌민 사무소가 생긴지 7년만이며 정식 인가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출범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7년 11월 호찌민 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지속적으로 지점 전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1년부터 본격화된 베트남 정부의 은행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외국계 은행들의 베트남 내 신규 진입이 제한된 상태였다.

지난 2012년 3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베트남 응

웬 탄 동 총리와외의 만남을 통해 하나은행 호찌민 지점 설립을 위한 물꼬를 텄다. 이후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과 지난달 베트남 당서기장 한국 방문이 이어지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계기가 됐다.

하나은행과 통합을 앞둔 외환은행 하나은행이 지점은 지난 1999년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에 개점, 현재 활발하게 영업 중에 있다.

한국 교민이 10만명에 육박한 베트남에는 약 3400여개의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80여만 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 베트남 투자 2위국으로(1992년 12월 수교 후 현재까지 330억달러) 국내 기업들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람 기자 hura@

메트라이프생명, 완전판매율 높인다

전 상품 고객만족도 조사 'e모니터링' 도입

메트라이프생명이 완전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모바일로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e모니터링을 도입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보유계약 10만건 당 민원 건수가 2013년 상반기 46.5건에서 올해 상반기 77건으로 65.5%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메트라이프는 e모니터링을 통해 완전판매율을 99.64%에서 99.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도 이달 초

온라인, 18일 모바일을 통해 e모니터링을 실시한다. e모니터링은 조사하는 서비스로 기존 전화를 통한 고객 만족도 조사 서비스에 추가돼 이뤄진다. 상품의 완전판매율을 높이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 차원이라는 것이 메트라이프생명 측의 설명이다.

다른 생보사도 온라인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단순한 상품에 국한돼 있고 질문도 기본 질문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상품에 대해 세부적으로 자세히 조사하고 있는 온라인 만족도 조사는 메트라이프생명이 유일하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 서비스는 일반보험에만 국한돼 제공된다.

강구기 기자 kkk@

아주저축銀,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아주저축은행은 19일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GWP(Great Work Place)코리아 선정 '2014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일하기좋은기업 선정제도는 미국을 대표하는 100대 기업의 성공요인을 연구하면서 신뢰경영(GWP)이 기업의 성장과 존속을 위한 주요 원천이라는 결론에 따라 탄생한 국제 표준 평가 모델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쉽고, 편리한 투자의 시작

교보증권 스몰캡 팀이

콕! 찍어드립니다

문자받고, 따라하는 참! 쉬운 투자서비스

대한민국 강소기업

창조1호 서비스

추천종목

※ 창조1호 서비스는 추천종목을 문자로 제공하는 선택수수료 서비스입니다.

창조1호 서비스만의 특별한 혜택

하	더 이상 종목 찾을 걱정 Zero!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 및 각종 리포트만 보면, 관심 종목이 한눈에!
둘	매매타이밍 고민 NO!	스몰캡팀의 추천(제외)종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발송, 그대로 따라하면 끝!
셋	실시간 종목 상담서비스	관심 종목에 정보가 부족하신 고객님을 위한 맞춤 1:1 종목상담 서비스!

※ 본 내용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서비스 체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창조1호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3개월 기준으로 예탁자산 300만원 이상 0.5%, 1천만원 이상 0.45%, 5천만원 이상 0.39%를 선택수수료로 적용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4-03987호(2014.06.20~2015.06.19)



	아이패드 에어2	아이패드 미니3	갤럭시 탭S(광대역LTE-A)	갤럭시 탭S(LTE)
프로세서	A8X 프로세서	A7 프로세서 · M7 모션 보조 프로세서	옥타코어(1.9GHz + 1.3GHz)	옥타코어(1.9GHz + 1.3GHz)
운영체제	ios8.1	ios8.1	안드로이드 4.4.2 킷캣	안드로이드 4.4.2 킷캣
디스플레이	레티나 디스플레이(2048 x 1536)	레티나 디스플레이(2048 x 1536)	슈퍼아몰레드(2560 x 1600)	슈퍼아몰레드(2560 x 1600)
카메라	후면 800만 화소 · 전면 120만 화소	후면 500만 화소 · 전면 120만 화소	후면 800만 화소 · 전면 210만 화소	후면 800만 화소 · 전면 210만 화소

삼성-애플, 이번엔 '태블릿 전쟁'

애플 '아이패드 에어2·미니3' 국내 전파인증 통과
삼성 '갤럭시 탭S LTE-A'와 태블릿 주도권 싸움
소니·엔비디아·노키아 등도 신제품 출시 잇따라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시리즈가 전파인증 통과, 다음달 국내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 시리즈의 대결에 이어 삼성과 애플의 2차 격돌이 태블릿PC 무대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20일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패드 에어2'와 '아이패드 미니3'에 대한 전자파적합인증(EMC)을 지난 18일 마쳤다. 출시시기는 지난해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와 비슷한 시기인 12월 중반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공개된 아이패드 에어2는 아이패드 사상 가장 얇은 6.1mm 두께를 구현해 화제를 모았다. 아이패드 미니3는 전자파와 비슷한 사양, 디자인을 채용했지만 골드 모델을 비롯해 지문인식 기능인 터치 ID가 추가됐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이달 초 '갤럭시 탭S 광대역 LTE-A'를 출시했다. 이 모델은 기존 LTE보다 3배 빠른 속도의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련 포인트는 삼성과 애플의 태블릿PC 주도권 싸움이다. 국내 태블릿 시장은 최근 1년간 분기별 평균 출하량이 약 33만대에 이른다. 지난 2분기 국내 태블릿 출하량은 약 30만대로 삼성전자가 절반 가까이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어 애플 20% 초반대, LG 전자 10% 초반대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업체는 미미했다.

그동안 삼성은 압도적인 국내 태블릿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왔지만, 올 4분기부터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 시리즈로 시장을 공략하는 가운데 소니, 레노버, 에이수스, 에이서 등의 업체들도 신제품 출시에 뛰어들었다. 애플을 포함한 삼성 경쟁업체 각 사가 태블릿 판매량을 조금씩 늘려도 삼성의 점유율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최근 소니는 8인치 '엑스페리아Z3 태블릿 컴팩트'를 내놨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5.0 롤리팝을 정식 출시하면서 HTC와 합작한 '넥서스9' 판매를 시작했다. 엔비디아는 게이머를 겨냥해 '월드 태블릿'을, 에이서는 국내에 첫 10만원대 원도 태블릿 '아이코니아 W1-810'을 출시했다. 레노버는 범프로젝터를 탑재한 '요가 태블릿2 프로'를 출시, 1차 입고 물량이 완판되기도 했다. 여기에 과거 휴대폰의 제왕이었던 노키아가 7.9인치 태블릿 'N1'을 애플 아이패드의 반값인 250달러에 내놓으며 태블릿 전쟁에 가세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낮은 가격으로 공략하는 일부 브랜드와 마니아층을 두텁게 형성한 애플에 맞서 국내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구매 포인트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SKT, 2G·3G폰 8종에 최저 지원금 지급
LGU+ 'G2'에 보조금 50만원...업계 최대
KT, 단말기 4종 출고가 최대 43만원 내려

이통3사, 지원금 '팍' 출고가 '뚝'

이동통신 3사간 지원금 인상과 출고가 인하 경쟁에 불이 붙었다.

SK텔레콤이 지원금을 상향조정함에 이어 LG유플러스도 19일부터 LG전자 '와인4'와 삼성전자 '마스터' 등 2G폰 2종에 대해 최소 12만9600원(표준요금제 기준)을 지급키로 했다.

이 회사는 또 LG전자 'G2'와 '와인스마트' 등 2종의 지원금도 상향 조정해 LTE8 무한대 요금제 기준으로 각각 50만원과

25만원을 제공한다. G2의 경우 종전보다 30만원을 인상한 것으로 업계 최대 지원금이다.

아울러 단말기 출고기도 인하해, 'G프로'와 'G3비트'는 39만9300원, 팬택 '베가 아이언2'는 35만2000원에 판매한다.

SK텔레콤은 하루 앞서 2G·3G 기종에 대해 최저지원금 지급을 시행했다. 해당 단말기는 삼성전자 '미니멀 폴더', '와이즈', '마스터 3G', '마스터 듀얼'을 비롯해 LG

전자의 '와인 사베트', '와인폰4' 등 모두 8개 기종이다. 또 LG전자의 'G프로', 'G3비트' 등의 출고가를 각각 39만9300원으로 내렸다.

KT는 최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타사와 비슷한 지원금 인상과 출고가 인하로 맞대응하고 있다. KT는 삼성과 팬택 단말기 4종에 대해 출고가를 최대 43만원 내리고 '갤럭시S5', 'G3' 등 최신 단말기 5종에 대한 지원금을 올렸다.

박성제 기자 psj@

현대자동차는 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4 LA 오토쇼(2014 Los Angeles Auto Show)'에 신형 쏘나타, 신형 제네시스 등 총 17대의 차량을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가 2014 LA 오토쇼에 전시한 신형 쏘나타.

사건제공 현대차

현대글로벌비스, 아담폴 인수

유럽 물류시장 공략 가속

현대글로벌비스가 유럽 현지 물류기업을 인수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19일 '아담폴(Adampol S.A.)'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담폴은 영국, 벨기에, 러시아, 이탈리아 등에 지사를 두고 전 유럽권을 중심으로 한 물류 및 보관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매출액은 약 1억 유로, 영업이익률은 10%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BMW, GM, 도요타,

폴크스바겐 등의 차량 약 40만대 이상을 유럽 등지에서 운송했다. 특히, 독일에서 생산된 BMW 완제품 중 러시아로 수출되는 물량을 독점으로 운송 중이며, 유럽에서 러시아로 운송되는 자동차 수송능력 1위를 기록하는 등 유럽권역 물류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아담폴 인수를 기반으로 유럽을 거점으로 한 물류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아담폴의 유럽 현지 네트워크를 더해 프랑스 게프코, 독일 BLG, 오스트리아 허들마이어 등 유수의 글로벌 물류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목표다.

조남호 기자 spdran@

'게임축제' 지스타, 부산서 개막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돼 지난해보다 100여개 많은 35개국 617개사가 2567개의 부스를 연다. 또 개인 이용자를 위한 BTC관은 109개사 1397개 부스를, 기업을 대상으로 한 BTB관은 508개사 1170개 부스를 차렸다.

엔씨소프트는 역대 최대 참가규모인 1800㎡(200부스)의 대형 전시관을 꾸린

다. '빅 스트림(Big Stream)'이라는 컨셉을 전시관에 형상화하고 엔씨소프트의 미래와 비전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준다. 또 '리니지 이터널' 클라우드 버전을 지스타(G-STAR)에서 공개한다.

스마일게이트는 '프로젝트T(가제)'를 비롯해 해외 개발사에서 내년 정식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공개 신작, 그리고 최근 2차 CBT를 성공적으로 마친 '아재라' 등의 온라인게임 3종과 역시 미공개 신작인 모바일 육성게임 '프로젝트 Puppy(가제)' 등 4종을 지스타에서 공개한다.

김태현 기자 t19@

"대기업 증세, 5년 전 이미 시작"

전경련 "세제개혁 축소로 사실상 증세" '감세조치 환원' 등 정치권 논의에 반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정치권의 대기업 증세 논의가 세법 개정안 등 대기업 육성에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20일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는 5년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공제 대상 축소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진 재벌 대기업 감세 조치를 원래대로 환원해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최근 정치권 논의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경련은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2009년부터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 환원세제 신설 등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08년 감세 위주로 이뤄진 세법 개정에 따라 그후 5년

간 대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는 23조7000억원이 줄었다. 하지만 이후 6차례의 세법 개정으로 매년 대기업 세부담이 늘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의 누적 세 부담은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인 최저한세율은 2009년 14%에서 2014년 17%까지 올라 최저한세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가 됐다.

대한상의는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공제 대상 축소를 세법 개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국제 흐름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이중과세 완화를 위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국내의 배당소득의 과세형평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대한상의는 법령이 개정되면 해외진출법인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늘어남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투자수익을 국내로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LG화학-獨 지멘스 ESS사업 손잡았다

(에너지저장장치)

내년 50MWh 규모 사업 공동 진행... 유럽공략 박차

LG화학이 세계적인 전력엔지니어링 회사인 독일 지멘스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협력을 강화하는 등 목표를 비롯한 유럽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화학은 19일 독일 바이에른주 에를랑겐에 있는 지멘스 본사에서 'ESS사업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향후 지멘스가 추진하는 ESS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으며, 지멘스도 LG화학의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LG화학은 양사가 지난 2012년부터 총 3MWh 규모의 다양한 ESS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를 발판으로 내년에만 50MWh 규모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하는 등 ESS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LG화학은 이번 MOU 체결에 앞서 지난 9월 독일 최대 ESS 구축사업에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등 유럽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LG화학은 올해 말까지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 위치한 켈트하임 마을에 구축 중인 ESS에 배터리를 공급



지멘스 스테판 메이(왼쪽) 중앙시스템사업 담당 CEO와 권영수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화학

하고, 내년 1분기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LG화학이 수주한 ESS는 독일 최대인 10.8MWh급이며 해당지역 약 2000가구가 하루 동안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 밖에 LG화학은 2011년 스위스 전력 엔지니어링 회사 ABB, 2012년 독일 태양광 기업 IBC솔라, 2013년 독일 태양광 인버터 회사 SMA 등에 전력망 및 태양광 발전용, 가정용 등 다양한 ESS에 배터리를 공급하며 유럽내 협력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현대자동차는 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4 LA 오토쇼(2014 Los Angeles Auto Show)'에 신형 쏘나타, 신형 제네시스 등 총 17대의 차량을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가 2014 LA 오토쇼에 전시한 신형 쏘나타.

사건제공 현대차

현대기아차 신무기 '북미진격'

'LA오토쇼' 참가... 신형 쏘나타·제네시스 등 17대 전시

현대기아차가 신차를 앞세워 북미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기아차는 19일(현지시간)부터 오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4 LA 오토쇼'에 나란히 신차를 내놓고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린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LF), 신형 제네시스, 투싼 수소연료전지차(FCEV) 등 총 17대의 차량을 전시한다. 특히 지난 6월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 신형 쏘나타 라인업을 전시해 신차 붐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 4월 2014 뉴욕 모터쇼에서 공개된 신형 쏘나타는 △2.4 모델 △역동성을 강조

해 주행성능과 응답성을 높인 2.0 터보 모델 △4기통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과 7단 듀얼클러치 변속기(DCT)를 탑재한 1.6 예코 모델이다.

또 지난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해 5월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한 신형 제네시스도 전시해 미국 고급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대차 전시장에서는 할로 디스플레이를 통해 신형 쏘나타 및 제네시스 차량 특장점을 알린다. 투싼 FCEV의 연료전지 시스템 모형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고객들에게 현대차의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폭스바겐 소형SUV '티구안' 누적 판매 '2만대' 돌파 눈앞

폭스바겐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구안이 국내 누적판매 2만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구안은 2008년 7월 국내에 첫 출시된 이후 지난달까지 판매 대수가 총 1만 9573대로 집계됐다.

티구안이 올들어 월 평균 약 630여대가 팔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2



만대 판매 고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입차 가운데 4번째로 폭스바겐 차량 중에는 최하다. 수입차 가운데 단일 모델 기준 판매 대수가 2만대를 넘은 차량은 BMW 520d, BMW 528, 메르세데스-벤츠 E300뿐이다.

김범근 기자 nova@

고가논란 이케아 “가격 안내린다”

8500여개 제품 가격 홈페이지 공개
소비자 “해외보다 2배 비싸” 비난
“일부 제품은 한국이 더 저렴” 해명
일본해 표기 지도 리콜 없이 사과만



한국 내 첫 매장인 이케아 광명점이 오는 12월 18일 개점을 확정했다.

이케아코리아가 다음달 본격적인 영업을 앞두고 불거진 '고가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그러나 자사의 입장 전달에만 치중하고, 적절한 후속조치 없는 말뿐인 사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앤드류 존슨 이케아코리아 세일즈 매니저는 19일 이케아 광명점 사전 공개 행사에서 “이케아는 전 세계 거의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지만 제품의 생산지와 유통, 포장수령, 관세, 부가세 등 국가별 상황에 맞게 다르게 책정된다”며 “한국에서 제품 가격 변경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13일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와 주방용품, 인테리어 소품 등 8500여개 제품의 가격을 공개했다. 당시 홈페이지에는 국내 판매 제품이 해외 제품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이 대다수였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외보다 한국에서 지나치게 비싸게 가격을 책정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케아코리아 측은 일부 제품의 경우 한국이 더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존슨 매니저는 “유통단계에 따라 가격 정책이 다른 만큼, 한국이 더 저렴한 제품도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펠로 암체어’를 예로 들며 한국에서는 3만9000원인 데 반해 일본은 3만5900원, 캐나다 5만1700원, 미국 5만5000원이라고 소개했다.

존슨 매니저는 “이케아의 근간은 보다 낮은 가격”이라며 “시간이 경과하면 좀 더 한국에 맞는 솔루션과 적합한 가격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케아는 매년 2월 상품 가격을 새로 책정한다.

이날 이케아코리아 측은 동해 표기 오류 제품에 대해 리콜하지 않겠다고 입장도 밝혔다.

안드레 슈미트갈 리테일 매니저는 “동해 표기 논란과 관련해 한국 소비자에게 사과드린다”며 “장식용 벽걸이 지도에 나와 있는 표기를 수정할 수 있는지 분사

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제품 안전성에 위험이 있을 때만 리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세계지도도 리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케아는 미국, 영국 등에서 판매 중인 대형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SEA OF JAPAN’(일본해)으로만 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이케아는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지도를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해외에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현재 이케아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오는 12월 18일 영업 개시에 앞서 벌어진 각종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핀란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탈라’ “내년까지 단독매장 10개 오픈”

알토 등 대표 디자이너 컬렉션도



“내년까지 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및 플래그십 스토어를 겨냥해 10개 이상의 단독 브랜드 매장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핀란드의 스칸디나비아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탈라’가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오동은 한국로알코엔하겐(피스카스그룹 한국지사) 대표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중국, 대만에 이어 한국에 본격 진출하면서 아시아 라이프스타일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국내에 이미 잘 알려진 테에마(Teema), 타이카(Taika) 등의 식기는 물론 이탈라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인 알바 알토, 오이바 토이카 등이 만든 예술품과 인테리어 컬렉션 등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스카스그룹의 홀리빙비즈니스 부문 파이비 팔틀라 페콜 부사장은 “최근 소득 수준이 증대하고 디자인에 대한 기준과 안목이 높아지면서 라이프스타일 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북유럽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탈라는 플래그십 스토어와 프리미엄 백

스칸디나비아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탈라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현대 건축의 거장 알바 알토가 디자인한 알토 화병을 선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화점을 중심으로 유럽, 미주, 아시아 등 23개국에 2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전 세계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는 이미 10개의 브랜드 스토어를 비롯해 다수의 아울렛과 백화점에 입점했고, 2013년에는 중국에도 진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 단독 매장 형태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선애 기자 isa@

화장품 빈병 431톤이 예술 작품으로...

‘공병트리’ 서울빛초롱축제서 만나요

아모레퍼시픽, 친환경 CSR ‘그린사이클’
핑크리본캠페인 조형물·엠블렘도 전시



아모레퍼시픽이 공병을 활용해 제작한 ‘모아나무’ 작품. 사진제공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의 친환경 사회공헌활동 ‘GREEN CYCLE(그린사이클)’ 캠페인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공병수거 캠페인 등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던 아모레퍼시픽의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화장품 공병을 통한 다양한 업사이클링(upcycling)과 리사이클링(recycling) 활동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공병 관련 활동은 2009년 이니스프리 매장의 ‘공병수거 이벤트’로 첫 선을 보였다. 이후 고객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2010년 아리따움 매장·대형마트·백화점, 2012년 에뛰드하우스까지 전국의 아모레퍼시픽 매장으로 확대됐다. 2009년 이후 누적 수거량은 총 431톤이며, 이를 통해 저감한 이산화탄소량은 456톤이다. 이는 어린 소나무 410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은 그린사이클 캠페인을 단순 재활용의 개념에서 확장해 적극적인 고객 참여와 스토리 발굴을 통해 고객이 캠페인에 공감하는 ‘참여형 대중 캠페인’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거된 공병으로 화장품 용기가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병을 활용해 제작한 ‘모아나무’라는 작품을 명동 프리메라 매장에 전시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이달 23일까지 서울 중구 청계천로 분사 일대와 삼일교부터 장동교 구간에서 그

린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2014 서울빛초롱축제’에 참여한다. 축제 현장에는 아모레퍼시픽 여러 브랜드의 화장품 공병으로 만든 핑크리본 캠페인 조형물, 그린사이클 엠블렘 조형물과 약 1000개의 공병을 대형 나무에 달아 만든 공병트리도 전시된다. 특히 전시된 핑크리본 캠페인 조형물은 지난 10월 진행된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서울대회의 포토존에서 1만여명의 시민들에게 선보인 바 있다.

더불어 아모레퍼시픽은 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공병화분 만들기, 공병향초 만들기, 프리메라 및 아리따움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친환경 테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이선애 기자 isa@

실속 도자기부터 북유럽 스타일까지 ‘원스톱 쇼핑’

한국도자기 ‘리빙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한국도자기 리빙 플래그십 스토어 눈썹점. 사진제공 한국도자기

한국도자기는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도자기를 포함한 리빙제품 전부를 아우르는 생활용품 전문 가두매장(플래그십 스토어)을 오픈했다. 한국도자기 플래그십 스토어는 한국도자기 전 제품은 물론 해외 유명 키친브랜드 제품까지 모두 볼 수 있으며,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층마다 다양한 콘셉트로 꾸며졌다.

1층에는 한국도자기 일반 제품과 럭셔리 라인인 ‘프라우나’뿐만 아니라 한국도자기에서 단독으로 수입하는 북유럽 스타일 주방브랜드 ‘덴스크’, 뉴욕 젊은 예술 작가들의 감성을 담은 테이블웨어 ‘트위그뉴욕’, 프랑 스 소블리에 쉐퍼언이 만든 와인잔 ‘레만글라스’ 등이 전시됐다. 또 2층에는 단반상기부터 구형반상기까지 예단용 제품들을 살필 수 있으며, 지하 1층에는 날개

도자기 제품을 파는 할인판매 코너가 마련됐다.

한국도자기 관계자는 “눈썹점을 통해 도자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 전부를 아우르는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isa@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피부를 만드는 컨디셔닝 효과
스트레스, 먼지, 음주 등 많은 외부 자극들로 남자의 피부 컨디션은 계속 떨어집니다. 칙칙하고 거칠어진 피부를 바꾸고 싶다면, 맨 바이오 에센스를 만나보세요. 매일 변화하는 피부 컨디션을 빠르게 끌어 올려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기억하세요,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입니다.

3일 후 느껴지고, 14일 후 완성되는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남자 피부



이오페 맨 바이오 에센스 인체적용시험자 대상 3~14일 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2012.11.6 ~ 2012.11.20 설문대상 23명 대상 / 조사기간 14일 / 피부생리공학센터 (7월 척도 중 상위 3점율 권장 응답률로 계산)

전국 이리따움과 대형 마트에서 아이오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 | www.iope.co.kr



말레이시아 최고층 빌딩 “또 삼성물산”

3300억원 규모 주상복합 단독 수주... 주거용 最高
1999년 452m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시공능력 인정
쿠알라룸푸르 중심부에 265m·251m 3개 동 건설

지난 1999년 452m 높이의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건설했던 삼성물산이 다시 말레이시아에서 초고층 랜드마크를 짓는다.

삼성물산은 말레이시아 스타 레지던스(Star Residences)빌딩의 공식 기공식과 함께 스타 레지던스 빌딩의 시공사로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타 레지던스 빌딩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중심부에 265m, 58층 2개 동과 251m, 57층 1개동 총 3개동의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으로 2019년 8월 완공되면 말레이시아 주거시설로는 최고층이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공사금액은 3300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민간개발업체인 UM Land와 심포니아프

(Symphony Life)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알파인 리턴(Alpine Return)이 발주처로 삼성물산은 시공부분에 참여한다.

18일 저녁 말레이시아 스타 레지던스 현장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세리 모하메드 나즈리 압둘아지즈(Seri Mohamed Nazri Abdul Aziz) 말레이시아 관광문화부 장관과 탄 스리 아즈만 야하(Tan Sri Azman Yahya) 알파인 리턴 회장 겸 심포니아프 회장,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이 참석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지미추(Jimmy Choo) 등 말레이시아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프로젝트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수주 역시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발주처가 먼저 사업 참여를 요청해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라는 점이



18일 말레이시아 스타 레지던스 현장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왼쪽 네번째)이 계약서를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스타 레지던스 빌딩 조감도. 사진제공 삼성물산

눈에 띈다. 실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완공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삼성물산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말레이시아의 상징인 페트로나스의 시공사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 발주처인 알파인 리턴은 사업 초기 말레이시아 최고급 레지던스의 상징성, 짧은 공사기간의 한계, 초고층빌딩 공사수행 역량을 이번 사업의 중점 관리사항으로 정하고 먼저 삼성물산에 사업수행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삼성물산에 있어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와 함께 말레이시아 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안전해 최우선 가치로 성공적 사업 수행을 통해 발주처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삼성물산의 ‘고객에게 신뢰받는 건설사’라는 경영이념을 실현시켜겠다”고 의미를 더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경기 아파트, 전세서 1억 보태면 산다

평균 매매가 2억9061만원·전세가 1억9254만원...격차 1억이내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이 주춤하고 전셋값의 강세가 뚜렷해지면서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격차가 1억원 이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사에 따르면 이달 2주차 시세 기준 경기도의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188만2392가구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9061만원, 평균 전세가는 1억9254만원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가 9807만원으로 조사됐다.

경기 아파트의 매매·전세가 격차가 1억원 이내로 좁혀진 것은 이 업체가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또한 5년 전과 비교하면 매매·전세가 격차는 1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2009년 경기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3억1743만원, 평균 전세가는 1억2293만원으로 그 격차는 1억9450만원이었다. 이후 경기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는 2010년 1억7649만원, 2011년 1억5260만원, 2012년 1억3682만원, 지난해 1억2189만원으로 매년 감소해 올해 1억원 이내로 좁혀졌다.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되며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전셋값은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과천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가 5년 새 가장 크게 줄었다. 2009년 5억9931만원이던 평균 매매·전세가 격차는 올해 3억2120만원으로 5년 만에 2억7811만원 감소했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이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약세를 보이며 투자 수요가 줄자 매매가는 하락했지만, 학군 등 주거여건이 좋아 전세수요가 꾸준해 전셋값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는 성남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전세가 격차가 1억9956만원(2009년 3억7306만원, 올해 1억735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사 관계자는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반짝 상승했다. 하지만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난으로 서울에서 밀려오는 세입자가 꾸준히 늘어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는 계속 좁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태진 기자 tjippo@

10월 주택 인허가 4만5천가구
작년 같은 달보다 36.4% 증가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경기의 선형지표인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4만 547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4%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1~10월의 주택 인·허가 누적 실적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7%나 증가한 39만 6803가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증가 흐름세를 주도했다. 서울(19.5%), 인천(9.0%), 경기(14.0%)에서 모두 인·허가 실적이 늘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83.5% 증가한 2만 50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9.0% 늘어난 3만825가구, 아파트 외 주택이 31.1% 증가한 1만4650가구였다.

10월 주택 착공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9% 증가한 6만85가구였다.

10월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27.5% 증가한 6만4258가구였다.

10월의 주택 준공 실적은 0.8% 감소한 4만373가구였다. 다만 10월까지의 누계 준공 실적은 21.6% 늘어난 35만9658가구로 집계됐다.

박상영 기자 sympark@

‘80억’ 아파트 경매에... 역대최고가 기록

아이파크삼성동 펜트하우스

역대 최고가 아파트 경매물건이 나왔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동 이스트원동 36층 3601호(전용 269.41㎡, 공용 257.84㎡)가 감정가 80억원에 경매에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감정가 80억원은 경매로 나온 단일 아파트·주상복합 물건 중 역대 최고가(일괄경매 등 제외)다. 두 번째는 감정가 65억원에 나온 도곡동 태워팰리스 C동 55층으로 2013년 6월 52억4100만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은 해당 물건이 서울중앙지방방법원 경매2계(사건번호 2014-8807)에서 오는 12월 4일 1회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자는 CJ E&M으로 지난 2013년 4억217만원 상당에 가압류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강제 경매로, 청구총액은 4억7335만원 수준이다.



이 외에 제1금융권 및 저축은행 등에 등기부상 70억7717만원 상당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삼성세무서의 압류도 걸려 있다. 현재 소유자는 김수경 수도권공공업 대표이사로 지난 2012년 8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269.41㎡ 펜트하우스의 경우 거래내역이 없어 시세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2013년 6월 해당 동 32층 전용면적 195.39㎡ 물건이 41억 5000만원에 거래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가 있다. 또 공급면적 243㎡가 3.3㎡당 매매가격 5203만원으로 국내 최고가라는 업체 설명 등을 감안했을 때 해당 물건의 공급면적이 527㎡(전용 269.41㎡, 공용 257.84㎡)가 넘고 조망권과 펜트하우스 프리미엄을 감안한다면 80억~100억원 상당에 시세가 형성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해당 물건은 경매 개시일 한 달 전 저축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원(등기부채권액 3억2500만원)의 추가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권자의 유동성 위기가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경매 취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물건은 1회 유찰될 경우 최저 매각가 64억원까지 떨어지는 만큼 12월 4일 1회차 경매에서는 유찰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서울시, 상암 133층 빌딩 다시 짓는다

중단 2년여만에... 해외자금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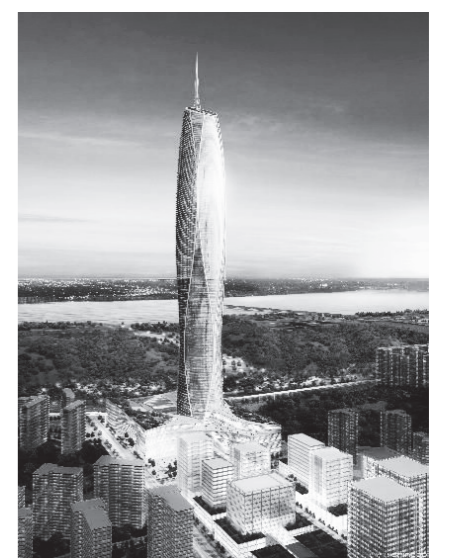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 시티(DMC)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상암 DMC 랜드마크빌딩’ 사업이 2년 7개월 만에 다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19일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건설사들과 랜드마크 부지 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 초고층 빌딩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상암 DMC 랜드마크빌딩’ 사업은 경기 침체 여파로 2012년 6월 중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한화건설, 호반건설 등 10개 건설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동욱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DMC 입주자 80% 이상 진행됐지만 가장 핵심적인 랜드마크 부지가 빈 채로 남아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분위기에 맞춰 랜드마크빌딩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2007~2008년 사업 추진 당시 전체 사업비 3조7000억원을 투입해 3만7259㎡ 부지에 숙박·업무·문화·집회시설로 이뤄진 133층 높이(640m)의 초고층 빌딩을 짓는 프로



젝트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와 건설사 관계자들은 당사의 달라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금의 시장 여건에 맞는 개발 방법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으로 DMC 투자 등 해외 자금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오는 26일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말까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태진 기자 tjippo@

1시간 속성 해설 셰일가스 혁명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저

셰일가스 혁명이 가져올 에너지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셰일가스와 관련된 주요 110개 기업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체된 IT 산업, 반격에 나선 조선, 철강, 항공, 철도, 소재 산업...
일본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대부활!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B, J유엔제이 번역
한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 싸움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본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 youngsh@etoday.co.kr

쇼핑대목 앞둔 美유통가, 깜짝실적 행진

로우스·홈디포·타깃·월마트 등 3분기 순익 예상상회 연말 홀리데이시즌 전망도 밝아...작년보다 4% 늘 것

미국 유통업체가 웃고 있다. 경기 회복과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의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데다, 블랙프라이데이로 상승되는 연말 매출 전망도 밝기 때문이다.

업종 대표기업들의 실적 역시 개선되면서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19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미국 2대 주택개발용품 판매업체 로우스는 이날 지난 10월 마감한 3분기에 5억 8500만 달러, 주당 59센트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순매출은 136억8000만 달러로 5.6% 증가했다.

월가는 로우스가 지난 분기에 주당순익 58센트, 매출 135억5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경쟁업체인 홈디포 역시 월가의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을 내놨다.

부동산시장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축허가가 호조를 보이면서 두 기업의 실적 호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상무부가 공개한 10월 건축허가는 108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에 비해 4.8% 증가한 것은 물론 지난 2008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미국 2대 유통업체 타깃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다. 타깃은 지난 1일 마감한 3분기에 특별할인판매를 제외한 주당순익 54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 제시한 목표인 40-50센트를 웃도는 것이다.

같은 기간 매출은 177억3000만 달러로 2.8% 늘었다. 월가는 175억6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1위이자 타깃의 경쟁업체인 월마트 또한 앞서 지난 13일 양호한 실적을 내놨다. 월마트는 3분기에 주당순익의 1.15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 1.12달러를 넘었다.

월가는 앞으로 실적을 발표할 주요 유통기업의 순익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점체인 반스앤드노블의 전년 대비 순익 성장률은 113%에 달하고, 아메리칸익아웃렛의 순익이 62% 늘어날 전망이다.



실적 전망도 밝다. 타깃은 올해 주당순익이 3.15-3.2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월마트는 올해 주당순익 목표를 4.92-5.02달러로 잡았다. 월가는 4.9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우스는 올해 매출 성장률을 4.5-5.0%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은 4.5% 성장이었다. 개장한 지 1년이 지난 동일상점 매출은 3.5-4.0% 증가할 전망이다. 이 역시 기존 전망치 3.5%에서 높아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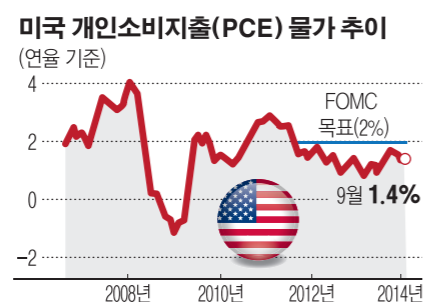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 홀리데이 시즌 역시 호황이 예상된다. 전미소매업협회(NRF)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4.1% 늘어난 616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온라인 매출은 8-11%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연말 온라인 매출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매출이 31%를 차지할 것으로 최근 예상했다. 지난해 모바일기기의 매출 비중은 21%였다.

투자자들도 유통업체의 실적 호조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날 타깃의 주가는 7.4% 올랐다. 로우스는 3.7% 상승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

美 디플레이 우려고조... 통화정책 바뀔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통화정책 변수로 디플레이션이 급부상하고 있다. 연준이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대다수 위원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하락에 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제성장 부진과 인플레이션 기대 하락이 맞물리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톰슨로이터와 미시간대학이 지난 14일 공개한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에 따르면, 5-10년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연평균 2.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다. 정책위원들은 금리인상 시기와 관련해

시장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사록은 "많은 위원이 지난 10월 중순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시작되면 추가적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지난달 FOMC 다수 의견 "불확실성 커져 시장 혼란"

라 금리인상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의사록 공개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혼란을 안겼다고 전했다.

마이클 블록 리노트레이딩파트너스 투자전략가는 "연준은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해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준의 정직함은 높이 평가하지만, 오늘 주식을 보유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등 주식시장은 내림세로 반응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

애플이 인수한 '비츠' 내년 아이폰에 설치

음원 다운로드 급감... 수익창출 기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비츠'를 내년 초 모바일 운영체제 iOS에 기본으로 넣어 모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1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시장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비츠는 이르면 내년 3월 iOS 업데이트를 통해 깔릴 예정이다. 이는 애플이 지난 5월 합합 뮤직시어터 드래의 헤드폰-스트리밍업체 비츠를 30억 달러(약 3조3200억원)에 인수한 이후 이를 통한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서는 첫 번째 시도다. 또 아이폰즈 음악 다운로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력히 추진하는 첫 사례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이에 애플의 음악 서비스 전략은 월정액 모델과 다운로드, 아이튠스라디오 등 세 가지로 나뉘게 됐다.

비츠는 아이튠스 레이블에 통합돼 새 브랜드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내년 초 나올 애플워치도 이 서비스가 포함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애플의 진출로 스포티파이와 판도라, 사운드클라우드 등 기존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됐다.

비츠 뮤직 가입자는 11만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 분기 아이폰이 약 330만대, 아이패드는 1230만대 팔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츠가 만만치 않은 경쟁자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11월 폭설



19일(현지시간) 뉴저지 버펄로 센트럴 터미널에서 쌓인 눈을 포크레인으로 치우고 있다. 최근 이틀간 버펄로 남동부 지역에 내린 적설량이 1년 적설량에 버금가는 등 38년 만의 기록적인 11월 한파와 폭설이 미국 전역을 강타했다. 일부 지역의 적설량은 152cm를 넘어섰다. 이번 폭설로 최소 8명이 사망했으며 항공편이 취소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속출했다. 버펄로/AP연합뉴스

동영상 스트리밍도 '시청률' 나온다

닐슨, 내달 넷플릭스·아마존 등 첫 측정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얼마나 대세가 되고 있는지 곧 시청률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가입자 수에선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 등 케이블 채널을 이미 넘어선 것이 확인됐지만 시청률은 아직까지 자체 발표하는 것 외에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조사업체 닐슨이 다음 달 처음으로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프라이 인스턴트 비디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청률을 측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미디어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윤경 기자 s914@

방송사 등 미디어 업체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자신들이 올리고 있는 전통적인 TV 광고 매출을 잠아먹을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영화업계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미디어 업체들이 조사 결과를 100% 신뢰할지는 미지수다. 광고를 노출시키지 않는 유료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시청률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넷플릭스 등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마찬가지다. 김윤경 기자 s914@

'트위터' 짐사는 인재들 코스톨로 리더십 흔들

최근 간부 인력 유출 심화 COO·CTO 등 공석 상태

회사비전·목표 자주 바꾸고 낙하산 인사 등 논란 일으켜



인력의 움직임은 대개 사운(社運)을 말해준다. 구글, 페이스북 등처럼 실리 큰밸리 인재 블랙홀이 된다면 그건 잘나가는 회사란 얘기다. 그런데 반대로 매일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난다면 그건 곧 문닫을 회사란 얘기다.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트위터다. 요즘 트위터에서 간부급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보니 일부에선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해야 한단 얘기도 나온다.

덕 코스톨로(사진) 트위터 CEO는 회사가 위기를 맞았다는 판단이 들자 임원들을 대거 교체했다.

가장 많이 바뀐 자리는 소비자·상품사업부 수장으로 지난 5년간 이 자리에 5명이 선임됐다. 지난달 말 이 자리에 오른 사람이 케빈 웨일이다. 전임자는 구글 맵을 담당하다가 트위터로 옮겨진 다니엘 그레프였는데 6개월도 안 돼 떠났다.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엘리 로우가나는 내부 갈등 끝에 지난 6월 회사를 떠났고 회사는 아직 이 자리를 채우고 있지 않다. 기술 부문에서 트위터에 크게 기여해 온 제레미 고든 부대표도 떠났고, 최고기술책임자(CTO)와 미디어사업부, 뉴스부문장 자리도 다 비어 있다.

지난 2010년 코스톨로가 외부에서 전격 영입된 것은 경영진의 내부 갈등이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창업자인 잭

도시와 예반 윌리엄스가 세력 다툼을 하면서 회사가 흔들렸던 상황에서 취임한 그는 안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움직였다.

그러나 주주들의 압박 때문인지 코스톨로 CEO의 리더십에도 금이 가고 있다.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너무 자주 바꾸는 데다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마이크 굤타를 새로운 전략투자팀 수장으로 보내버리고 CFO에는 자사 기업공개(IPO)에 도움을 준 골드만삭스 출신의 앤소니 노토를 '보은 인사'로써 설화를 불러 일으켰다.

포브스에 기업 관련 칼럼을 게재해 오고 있는 피터 코잔 코넬그룹 회장은 CEO 교체론을 제기했다. 그는 "세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COO가 코스톨로 CEO에 비해 훨씬 일을 잘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에서는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떠나지 않는 한 2인자로 역할이 한정돼 있다"면서 "만약 샌드버그가 트위터의 CEO가 된다면 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 구글 등에서 배운 경영학 지식, 로렌스 서머스와 함께 관(官)에서 일한 경험 등이 어우러져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자전문지 베렌스는 트위터가 아예 뉴스나 정보를 전달하는 회사로 일대 변신을 꾀하는 것도 생존을 위한 방법일 것이라고 봤다. 김윤경 기자 s914@

글로벌 리포트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안을 20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한다.

백악관은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날 오후 8시 전국에 생중계되는 특별 연설을 통해 이민개혁안과 관련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체 불법 체류자 1170만명 가운데 최대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속권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더 많은 비자를 발급하는 동시에 불법 이민을 막고자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스탠리, 테슬라 실적전망 낮춰

모건스탠리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판매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다.

애덤 조나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와 실적 전망을 낮춰 악재를 제공했다.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오는 2015년 출시할 모델X가 5000대 판매될 것

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 1만5000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는 초기 모델의 품질 만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판매 전망 하향의 이유를 설명했다.

테슬라의 올해 주당순익의 전망은 1.13달러에서 73센트로, 내년 전망은 4.39달러에서 2.45달러로 하향했다.

조나스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등급은 '비중확대'로 유지했으며, 목표주가 역시 320달러를 고수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 들어 71% 급등했다. 같은 기간 S&P500지수는 11% 올랐다. 이날 나스닥에서 테슬라 주가는 3.9% 급락한 247.74달러로 마감했다.

美정부, 올해 벌과금 수입 27조원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 기타 정부기관이 2014회계연도(9월 기준)에 기록한 벌과금 수입 총액이 247억 달러(약 27조3000억 원)였다고 미국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올해 미국의 벌과금 수입은 전년도의 약 80% 달러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직접 받아낸 돈이 137억 달러였고, 나머지 110억 달러는 주 정부나 다른 정부기관이 수령했다.

법무부는 금액 증가에 대해 "씨티그룹이나 JP모건체이스 같은 대형 금융기관이 부실 모기지 판매와 관련해 거액의 벌금을 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씨티그룹은 지난 7월 70억 달러, JP모건은 지난해 11월 130억 달러의 벌금을 각각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소비자 구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면 연방정부는 씨티그룹으로부터 45억 달러, JP모건에서는 90억 달러를 각각 받았다.

싱글 라이프 전성시대

방송가 1인가구 소재 프로그램 붐

MBC '나 혼자 산다'·SBS '달콤한 나의...'

싱글남녀의 일상 다큐 형식으로 담아내

올리브TV '오늘 뭐 먹지'·'마트당' 요리 소재

방송 레시피 구매정보 제공 소비자 호응도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일명 '싱글세'를 언급해 논란이 증폭됐다.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우려한 것이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통계청 조사 결과 2012년 454만 가구로 내년에는 500만 가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인 가구 급증하면서 각 방송사는 1인 가구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속속 제작하고 있다.

1인 가구를 다룬 예능, 교양 프로그램으로 MBC '나 혼자 산다'가 대표적이다. '나 혼자 산다'는 혼자 사는 남성들의 일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려낸다. 전현무, 김광규 등 출연자들은 서로 다른 싱글라이프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공감을 준다. 1인 가구의 삶을 다룬 교양 프로그램도 선을 보였다. 최근 종영한 SBS '달콤한 나의 도시'는 30대 혼자 사는 여자 네 명의 삶과 생활을 보여줬다.

드라마에서도 1인 가구 트렌드 반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3월 종영된 tvN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는 3년차 이혼녀인 싱글녀와 그녀 주변에 있는 1인 가구들의 라이프와 먹방을 결합시켜 신선함을 선사했다. 지난해 선보인 웹드라마 '출출한 여자'도 온라인 공개 직후 40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싱글족의 이목을 끌었다. 30대 싱글 여성의 삶 속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넣어 현실감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매화 에피소드와 연결되는 요리 레시피를 공개해 재미도 더했다.

1인 가구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 트렌드는 기존의 가족 중심의 요리 프로그램으로까지 번져 갔다. 현재 방영 중인 올리브TV의 '올리브쇼2014'의 '마트당(마트를 헤매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은 마트에서 판매되는 인스턴트, 반조리 제품을 출연자들이 직접 먹어 보고 순위를 매기는 코너로 1인 가구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리브쇼2014' 신상호 PD는 "어느 순간부터 마트와 편의점에 완조리 및 반조리 식품이 급증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제품 종류에 비해 품질이 어떨지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기 때문에 '마트당'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올리브TV '신동엽, 성시경은 오늘 뭐 먹지?'(이하 '오늘 뭐 먹지')는 집밥의 고수나 유명한 셰프의 가정식 레시피를 신동엽과 성시경이 각자의 방식대로 따라하는 요리 프로그램이다. 특히 '오늘 뭐 먹지?' 공식 홈페이지에는 방송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들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도 제공된다. '오늘 뭐 먹지' 설정호 PD는 "시청자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보고 물건을 사서 직접 해 볼 수 있게 유통과 점포시킨다면 바쁜 1인 가구 시청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1인 가구를 소재로 삼거나 대상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성덕 대중문화 평론가는 "혼자 사는 20대뿐만 아니라 기러기 아빠, 황혼 이혼자, 정신적으로 혼자인 사람들이 많은 4050세대까지 모두 1인 가구에 포함된다"며 "1인 가구 소재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올리브TV '올리브쇼2014'의 '마트당'



MBC '나 혼자 산다'

내일 51회 대중상영화제

'변호인' vs '명량'... 올해의 영화는?

'끝까지 간다' '해적' 등 후보작 21편
총 17개 부문... 전문가·네티즌 투표

올해로 51회째를 맞은 대중상영화제의 후보자(작)가 공개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리는 대중상영화제는 영화 전문가, 관계자들과 네티즌 투표를 반영해 작품성과 흥행성을 두루 갖춘 총 21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올 초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송강호 주연의 영화 '변호인'은 최우수작품상, 남우주연상, 시나리오상, 신인감독상 등 총 11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라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1700만 흥행 신화를 쓴 최민식 주연의 영화 '명량'은 최우수작품상, 남우주연상, 감독상, 기술상 등 총 9개 부문에서 10개의 후보자(작)를 배출했다.

또 344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끝까지 간다'와 866만 관객의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은 7개 부문에 후보자 이름을 올렸다.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는 6개 부문에, 영화 '제보자'와 '해무'는 각각 5개 부문의 후보로 선정됐다.

영화 '소원' '신의 한 수' '역린'은 4개 부문에, 영화 '수상한 그녀' '인간중독' '좋은 친구들' '타짜-신의 손' '한공주'는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이 외 영화 '도희야'는 2개 부문, '마담 뽀빠' '우아한 거짓말' '죽구왕' '집으로 가는 길'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는 각각 1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한편 대중상영화제는 지난 17일 핸드프린팅 행사를 진행했다. 핸드프린팅 행사에는 전년도 남우주연상 수상자이자 대중상영화제 홍보대사인 '관상' 송강호와 '뽀빠주'



엄정화, '7번방의 선물' 류승룡을 비롯해 '관상'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조정석과 '늑대소년'으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장영남, 남녀신인상 수상자인 '은밀하게 위대하게' 김수현, '짓' 서은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중상영화제는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과 영화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1958년 문교부가 제정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예술상으로, 1962년 제1회 대중상영화제를 개최한 이래 올해 51회를 맞이한다. 올해 대중상영화제는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신인남우상, 신인여우상, 촬영상, 조형상 등 총 17개 경쟁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대중상영화제 사무국은 "그 어느 해보다 경쟁한 21편의 후보작이 시상식을 빛낼 예정이다. 특히 반세기를 넘어 51회째를 맞은 대중상영화제는 국내 대표 영화 시상식으로서 권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두선 기자 sun@

HS MARKET

www.hsmarket.co.kr

HS마켓만의 특별한 혜택

상품 구매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적립금 제공
나만의 레시피, 딸깍 달고 적립금 또는 한성 제품 받기
매일 아침 10시 원데이특가!
신제품 20%할인

랭킹 엔터테인먼트

영화는 '인터스텔라'가 주간 관객 수 483만9916명을 기록하며 주간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2위는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후 이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카트'가 차지했다. TV는 KBS 2TV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가 시청률 31.9%(닐슨코리아 제공, 이하 동일), KBS 1TV 일일드라마 '고양이는 있다'가 24.7%를 기록하며 각각 1위와 2위를 유지했다. 음악은 가수 이하이와 악동뮤지션 이수현의 유닛 그룹 하이수현이 부른 '나는 달라'가 진입 첫 주 1위를 차지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영화	관객	누적관객
1	인터스텔라	239만 7463명	483만 9916명
2	카트	39만 4671명	42만 3527명
3	패션왕	20만 3627명	53만 9662명
4	나를 찾아줘	12만 3122명	167만 5263명
5	아더 우먼	4만 9268명	5만 1983명
6	박스터	3만 4606명	8만 5000명
7	우리는 형제입니다	2만 9092명	96만 4470명
8	올브스	2만 8731명	2만 8904명
9	나의 독재자	1만 6733명	38만 2379명
10	왓 이프	1만 5623명	2만 0183명

TV 시청률

순위	프로그램	시청률	방송사
1	가족끼리 왜 이래	31.9	KBS 2TV
2	고양이는 있다	24.7	KBS 1TV
3	전설의 마녀	20	MBC
4	KBS 9시뉴스	17.4	KBS 1TV
5	장미빛 연인들	16.9	MBC
6	해피선데이	16.4	KBS 2TV
7	달콤한 비밀	16	KBS 2TV
8	청담동 스캔들	15.3	SBS
9	개그콘서트	14.5	KBS 2TV
10	러브인 아시아	13.8	KBS 1TV

온라인 음원차트

순위	곡명	아티스트	전주비교
1	나는 달라	하이수현	진입
2	내가 그리웠니	MC몽	-1
3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	MC몽	-1
4	죽을만큼 아파서 Part.2	MC몽	0
5	헤븐엔딩	에픽하이	3
6	광화문에서	규현	진입
7	마음 단단히 먹어	MC몽	-4
8	12시 30분	비스트	2
9	도망가자	MC몽	-4
10	본 헤이더	에픽하이	2

“성찰·경청... ‘하모니 리더십’ 필요한 때”

삼성 사장단 회의의 강연 나선 뮤지컬 감독 박칼린 “조직원들과 소통·협력... 변화 두려워 말라” 강조

삼성 사장단이 뮤지컬 감독 박칼린에게 ‘하모니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예전 한 방송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 멋진 하모니를 만들었던 소통의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다.

박 감독은 19일 사장단 회의에서 경청과 소통의 리더십에 대해 강연했다. 박 감독은 “중요한 위치에서 서로 중요성을 느끼고 장단점을 격의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수직이 아닌 수평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소통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뮤지컬 연출은 결국 항상

팀원과 교감하는 집중력과 소통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결국 조직의 리더는 조직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과 협력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에 앞서 리더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주문했다. 박 감독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대화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기 자신의 역량과 한계를 알아야만 경청과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 보면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지면서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며 “결국 이같은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

하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상 변화를 추구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시시각각 유기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기업의 속성상 조직의 리더가 변화를 두려워하면 임직원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삼성 사장단은 수만명의 임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사장단은 최근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을 초청해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다. 지난해에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를 맡고 있는 서희태씨가 ‘마에스트로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했고 양국 국가대표 감독 서거원 양궁협회 전무와 하일성 야구 해설위원도 리더십 강연자로 초청됐다.

김지영 기자 gully@

‘사진 신부’ 천연희씨 유품, 100년만에 고국으로

하와이대 소장품 장서각 기증

일제 강점기 미국 하와이로 이주한 ‘사진 신부’(picture bride) 천연희(1896-1997)씨의 유품이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일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가 소장하던 천연희씨의 유품과 각종 자료 모음인 ‘천연희 컬렉션’을 장서각에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 출신인 천씨는 일제 강점 하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던 중 20세이던 1915년 6월 29일 하와이 마우이섬 피아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하던 김진복씨의 사진 신부로 미국에 건너갔다.

‘사진 신부’란 먼저 하와이에 이민한 신랑감의 사진만 보고 편지로 결혼을 약속하고서 결혼 이민을 떠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사진 신부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신랑감이 부담한 데다 부모 반대를 무



트럼프 하와이로 왔으므로 신부들은 도착 당시 거의 무일푼이었다. 신랑은 대부분 신부보다 10년 이상 나이

가 많았고 저임금 노동에 종사했으며 도박이나 술에 빠진 이들도 있었으나 신부들은 결혼을 파기하고 귀국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사진 신부들은 도착하자마자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일부는 신부인회나 부인교육회, 대한부인회, 대한부인구제회 등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상해 임시정부에 모금액을 보내는 등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천씨 역시 결혼하면서 농장 노동자 옷 세탁 등 온갖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야 했다. 국민회, 부인구제회, 동지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외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했고 이승만 박사가 발행한 ‘국민보’와 ‘태평양잡지’를 구독했다.

‘천연희 컬렉션’에는 1971년부터 천씨가 자필로 남긴 자전적 기록, 자신의 삶을 구술한 것을 녹음한 카세트테이프, 1915년 하와이 이주 당시 일본으로부터 발급받은 여권 등이 포함됐다. 구성원 기자 carlove@

백석 ‘사슴’ 초판본

7000만원에 낙찰 근현대 문학서 최고가

‘천재 시인’ 백석(1912-1996·사진)의 시집 ‘사슴’ 초판본이 경매를 통해 7000만원에 팔렸다. 이는 국내 근현대 문학서적 경매 사상 최고가로 알려졌다.

경매회사 코베이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6층 코베이 전시장에서 진행한 경매에서 ‘사슴’ 초판본은 5500만원으로 입찰이 시작돼 7000만원에 낙찰됐다. 코베이 관계자는 “전문 소장가가 낙찰 받았다”면서 “3년 전 운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이 1700만원에 낙찰된 적이 있는데 문학 서적으로는 최고가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36년 1월 산광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한 ‘사슴’의 초판본 가격은 당시 2원(圓)이었다. 100부밖에 찍지 않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희귀본으로 꼽힌다. 시집 뒤편에 저작(著作) 겸 발행자 백석이라고 명기돼 있어 백석이 자비로 시집을 펴낸 것으로 보인다.

코베이에 따르면 이번에 경매에 나온 ‘사슴’ 초판본은 백석이 이육사(1904-1944) 시인의 동생인 문학평론가 이원조(1909-1955)에게 직접 준 것이다. 시집 안에는 “이원조씨 백석”이라고 적혀 있다. 백석과 이원조는 문우(文友)였다. 일본에서 유학한 두 사람은 일본 문학을 비롯해 세계 문학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33편이 실려 있는 ‘사슴’은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거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시집’(계간 ‘시인세계’ 2005년 여름호 조사)으로 꼽힐 만큼 큰 사랑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진 기자 tipippo@

김연아 “에볼라 피해 어린이를 도와주세요”

긴급구호 홍보영상 출연

‘피겨여왕’ 김연아(24·사진)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신음하는 서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구호 활동에 나섰다.

19일 유니세프에 따르면 김연아는 최근 유니세프 친선대사로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에볼라 긴급구호 캠페인’ 홍보 영상에 출연,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어린이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연아는 “전 지구를 공포에 몰아넣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힘없는 어린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서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에볼라 감염지역에 거주하는 5세 미만 어린이는 250만명, 에볼라로 고아가 된 어린이는 3700명여에 이른다. 특히 에

볼라에 감염된 고아들은 재감염을 우려하는 친척과 이웃들로부터 또 다시 버림받는 상황이다. 또한 감염 우려 지역 대부분의 학교는 폐쇄돼 총 350만명의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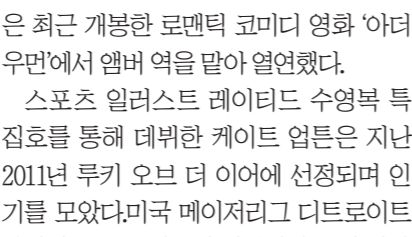
유니세프는 에볼라가 발생한 올 1월부터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에서 예방 및 치료·보호를 위한 대규모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2월까지 에볼라 긴급구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필요 기금의 30%만이 모금된 상황이다. 한편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싱글 금메달과 2014 소치동계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김연아는 지난 2010년 유니세프 국제 친선대사로 임명된 후 다양한 기부 활동을 벌여왔다. 오상민 기자 golf5@

美 톱모델 케이트 업튼 ‘SNL코리아’ 카메오 출연

미국 톱모델인 케이트 업튼(22·Kate Upton·사진)이 tvN 예능프로그램 ‘SNL 코리아’에 출연한다.

tvN 측은 케이트 업튼이 오는 22일 밤 9시 50분에 생방송되는 ‘SNL 코리아’에 카메오 출연해 신동엽과 개그 호흡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SNL 코리아’ 제작진은 “케이트 업튼 측이 먼저 출연 의사를 밝혔고 흥미로운 무대가 될 것 같아 흔쾌히 받아들였다. 더욱이 케이트 업튼은 미국 ‘SNL(Saturday Night Live)’ 출연 경험도 있기에 더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모델로 데뷔한 케이트 업튼



은 최근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아더 우먼’에서 엠버 역을 맡아 열연했다. 스포츠 일러스트 레이티드 수영복 특집호를 통해 데뷔한 케이트 업튼은 지난 2011년 루키 오브 더 이어에 선정되며 인기를 모았다.미국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투수 저스틴 발랜더와 공개 연애로 국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SNL 코리아’는 미국에서 38년간 인기리에 방송된 ‘SNL’의 한국 버전이다. 그동안 방송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시 유머와 병맛 코드, 통쾌한 풍자를 더해 사랑받고 있다. 신동엽, 유세윤, 김민교, 박재민, 나르샤, 안영미 등이 고정 크루로 출연 중이다. 최우선 기자 sun@

‘스키 사고’ 슈마허... 회복해도 휠체어 생활

기억·언어능력 등 장애 남아

스키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포뮬러(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사진)가 회복해도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고 기억이나 언어능력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자동차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프랑스의 전직 F1 선수인 필립 스트레프는 “슈마허가 회복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같이 밝혔다. 슈마허는 사고 후 뇌 수술을 받았고 지난 6월 16일 의식을 되찾고 나서 지난달 퇴원해 자택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의 재활치료가 자택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일부 호전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험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91년 F1 무대에 데뷔한 슈마허는 7차례 챔피언십을 휩쓸며 ‘F1 황제’로 불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 프랑스 알프스 메리벨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불명에 빠졌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6월 16일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지난달 퇴원해 자택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승무’ 추는 최승희

한국 신무용 개척자... 日서 찍은 작품 사진 첫 공개

‘한국 신무용의 개척자’ 최승희가 승무를 변용해 만든 작품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출자료관 연극제는 20일 최근 일본 근대 무용의 선구자이자 최승희의 스승인 이시이 바쿠의 손자 이시이 노부루에게서 이 같은 사진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흰 저고리에 검은색 장삼을 걸친 최승희가 머리에는 흰 고깔을 쓰고 어깨에는 가사를 입은 채 춤사위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최승희는 1930년대 중반 일본을 방문한 ‘근대 전통춤의 아버지’ 한성준에게서 승무를 비롯한 전통춤을 배웠으며, 이를 토대로 서양 춤과 한국 춤을 결합한 신무용이라는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냈다.

성기수 교수는 이번 사진에 대해 “전통 승무의 형식이 살아있으면서도 세련되고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전통의 현대화’의 상징적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사진제공 한국근대춤연구회·출자료관 연극제

한편 한성준의 직계 제자인 이재주 서울대 명예교수와 성 기수는 오는 22~24일 한성준의 복간주 공연 활동의 흔적을 찾아 중국 연변을 방문한다.



제 3회 지속가능과학상 수상자들이 지난 14일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지속가능과학회

‘지속가능과학대상’ 이경희 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지속가능과학회는 최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과학’이란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제3회 지속가능과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이자 이 학회 수장을 맡고 있는 이영환 회장은 “지속가능과학회 포상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속가능과학대상 개인 1인, 지속가능과학상(환경·사회·경제·행정부문) 각 부문별 기관 1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상자는 △지속가능과학대상 이경희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지속가능과학상(환경부문) 한국수자원공사 △지속가능과학상(사회부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속가능과학상(경제부문) 한화건설 △지속가능과학상(행정부문) 종로구청 등이다.

지속가능과학대상을 수상한 이경희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은 생태와 환경건축 분야에 많은 선구적인 연구 업적과 후진 양성을 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 ‘협력경영 동반성장’ 책 내

김종국(사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이 ‘협력경영 동반성장’이란 책을 펴냈다.

김 사무총장은 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나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일반적으로 양보하거나, 사회적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동반성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책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필요성, 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가치에 대한 정의 등을 담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이 상호 거래에 기반해 경영성과를 내는 협력경영의 본질 등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 서술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인사

◆고용노동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조정실 정책행정담당관 송홍성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이현수 △고용정책실 직업능력정책과장 권태성 △인력수급정책과장 정년취업지원과장 민길수 △산재예방보상정책과 산안안전과장 김규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유한봉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오은경 △인력수급정책과 사회적기업과 김준휘 △인력수급정책과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이영진 △인력수급정책과 장애인고용과 박영섭 △노동정책실 근로개선정책과 최승찬 △노동정책실 고용차별개선과 조원식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김옥진 △대변인실 홍보기획팀 정태인 △기술직 서기관 승진 △산재예방보상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박종일 △산재예방보상정책과 화학사고예방과 강성훈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팀장 정성근 △고용정책실 직업능력평가과장 김효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김호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안경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신인재 △개방형직위 서기관 채

용 △경남지방고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장권

◆연합뉴스 △마케팅국장 김경석 △편입국 경제담당 부국장 김중현 △증권부장 주중국 △북한부장 권영식 △국제국 국제뉴스1부장 최재석 △경기취재본부장 추영훈 △광주·전남취재본부장 박성우 △유럽총국장(내정) 이명조

■ 부음

▲허두석(우리투자증권 부장)씨 부친상. 구본천(김영장 변호사)·문준열(인사이트코리아 대표)씨 장인상 = 19일 오전 11시, 서울성모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2-2258-5940

▲목진영(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대표)씨 모친상 = 19일 오전 8시 45분,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1일 오전 5시, 02-3410-3153

▲남민(K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사장)·훈(최효성 감사팀 부장)씨 모친상, 허성렬(자영업)·심광택(주요스모아 상무)씨 장모상 = 19일,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14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 20분, 장지 천안공원묘역, 02-3410-6914

강창희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기있는 은퇴남편 1순위는?

노후설계 강의를 할 때 건강, 노후자금 못지않게 평생 현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자라는 노후자금 때문에도 그렇지 만 퇴직 후 30~40년 동안의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도 자신에게 맞는 소일거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한 번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을 끝내는 순간 한 남성 참가자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했다. "아니 왜 남자들이한테만 일하라고 그러십니까? 요즘 점심 때 시내 음식점에 가 보세요. 맛있는 것은 여성들끼리 모여서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에 가 보면 땀 뻘뻘 흘리며 운동하고 있는 게 여성들인데 왜 남자들에게만 일하라고 하는 겁니까?"

많은 남성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아내와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며 오순도순 정답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는다. 아내 역시 그러한 시간을 기다려 왔을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된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만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 아내는 밖에 나가 친구들과 모임을 갖거나 이런저런 취미를 즐기느라 바빠서 예전처럼 남편을 챙기려 들지 않는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런 아내들에게 섭섭할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편 또한 아내가 힘든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해 돌아온 남편을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서 나타나는 현상일까? 아니면 부부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생 100세 시대로 진입하면서 퇴직 후 부부만의 시간이 늘어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일 것이다.

종래에는 자녀를 여럿 낳은 데다 수명도 짧고 손자손녀를 봐주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독립한 후 남편과 아내 단 둘이서만 사는 시간이 매우 짧았다.

서울대 한경희 교수는 '부부 둘이 사는 시간이 1.4년에 불과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자녀를 적게 낳는 데다 수명까지 늘어난 오늘날에는 부부 둘이 사는 시간이 과거보다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 한 교수는 20년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역사상 그런 경험이 없다. 단 둘이 사는 데 대한 노하우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 아내들도 다 똑같다는 사례로 일본의 은퇴전문가 오가와 유리가 전하는 일본의 인기 있는 은퇴 남편 1순위를 소개한다.

어떤 남편이 인기 있는 남편일까?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건강한 남편? 요리 잘하는 남편? 상냥한 남편?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집에 없는 남편'이었다.

세상의 모든 아내가 다 이렇다면 결국 남편이 바깥 수밖에 없지 않을까? 퇴직 후에도 낯서간만은 돈벌이가 되든 안 되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소일거리를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담은 결국 평생 현역이 아닐까 싶다.



트러스트연금교육대표 김대표

배극남의
직격탄



엑소와 명국환, 당신은 누굴 아나

문화경제국장 겸 문화부장

"아악!" 엄청난 환호다. "엑소!" "엑소!" 끝없는 연호다. 국내 팬만 아니다. 일본, 중국 팬들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발치에서라도 엑소를 보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른다. 엑소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제목이다. "누구지?"라는 웅성거림만 있을 뿐이다. 1956년 가수신발대회 입상을 통해 데뷔해 '백마야 우지마라' '방랑시인 김삿갓' 등 히트곡을 낸 원로가수 명국환(81)이다. 2012년 데뷔한 엑소와 60년 가까이 가수 활동을 해 온 명국환이 한 공간에 자리했다. 17일 오후 5시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들이 시상식 전 모인 서울 대학로 흥익대 아트센터 3층 리셉션장이다.

이곳에는 1955년 데뷔해 60년 동안 희극 연기자로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MC로 활동하며 살아있는 전설이 된 송해와 요즘 대세 개그맨으로 각광받는 예능 스타 김준현, 한국 드라마의 한 획을 그은 '전원일기' '수사반장'의 최불암과 최고 한류스타로 몸값이 치솟고 있는 이민호-김수현의 모습이 보였다.

엑소와 명국환, 김수현-이민호와 최불암, 김준현과 송해의 사이는 우리 대중문화 역사 그 자체다. 하지만 그 사이는 단절이다. 오늘의 엑소, 김수현, 이민호, 김준현은 어제의 명국환,

최불암, 송해가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중문화의 어제와 오늘의 간극은 엄청나다. 그 간극으로 인해 한국 대중문화 역사는 잊혀 가고 실종돼 간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화려한 언어의 성찬은 넘쳐난다. 정부, 정치권, 기업, 학계 할 것 없이 앞다퉀 '한류는 역사 이래로 가장 큰 문화적 사건'이라며 한류 관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외면하고 있다. K-POP이 일본열도에 울려 퍼지고 한국 드라마가 중국 대륙을 강타한다며 한류의 화려한(?) 외형적 성과에만 취해 있다. 엑소, 김수현, 이민호를 향한 환호에만 눈이 멀어 명국환, 최불암, 송해에 대한 침묵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명국환, 최불암, 송해에 대한 침묵은 대중문화 역사에 대한 망각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 망각을 불러온 것은 한국 대중문화 회사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서나 변변한 책자 하나가 없다는 처박한 현실이다.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 그 자체인 원로배우, 중견가수 등 연예인의 프로파일조차 제대로 정리된 게 없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대중문화의 어제와 오늘, 그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중문화 박물관이나 스타 박물관은 전무하다.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박물관이나 제임스 딘 기념관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은 명소다. 미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그리고 존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인기 연예인 등의 생가는 물론이고 거주했던 장소나 공간은 기념관이 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일본 대중문화 역사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외국 스타와 대중문화 박물관은 전 세계 각국 팬들을 불러 모아 자국의 굳건

한 대중문화 소비층으로 자리 잡게 하는 한편 박물관 자체가 막대한 이윤 창출의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

한류로 인해 오늘도 수많은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인 한국을 찾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국 대중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줄 공간은 없다. 고작 드라마 촬영장소나 좋아하는 스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전부다. 팬심으로 무마하기에 한국 대중문화 역사에 대한 콘텐츠는 부실하기만 하다. 한국을 방문한 한류 팬의 결론은 실망이다.

우리 자신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대중문화의 지나온 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대중문화사를 수놓은 존재나 그 의미를 알고 있을까. 그 대답은 매우 회의적일 것이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는 암울하다. 한국 대중문화 역사를 망각하면 대중문화의 내일은 담보할 수 없다. 엑소로 대변되는 오늘날 기억하고 명국환으로 상징되는 어제를 잊어버리면 우리 대중문화의 퇴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중문화의 내실을 다지는 작업의 출발을 역사를 복원하고 어제와 오늘을 볼 수 있는 대중문화 박물관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1970~80년대 멜로 드라마의 청순한 주인공으로 화려한 여배우 시대를 열었고 최근 꽃누나 이미지로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던 스타 김자옥이 지난 17일 숨을 거뒀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그녀의 존재도 쉽게 잊힐 것이다. 이전의 수많은 스타들처럼. 만약 박물관에서 김자옥을 만난다면 그녀는 잊혀지지 않는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생각만 해도 고맙고 멋진 일이 아닌가.

knbae@

온라인 와글와글 거위털 대신 오리털, 캐나다구스 아니라 덕스였네

온라인 와글와글

○...프리미엄 수입 브랜드의 패딩 점퍼 대부분이 거위털이 아닌 오리털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오리털은 거위털보다 가격이 싸고 보온성도 떨어진다. 온라인상에는 '할~ 캐나다구스가 아니라 캐나다 덕스였네', '거위털 오리털 제일 살아있는 상태에서 털 좀 잡아 뽑지 마라', '명칭이들이 가능 때문에 입나? 상표 때문에 입지', '비둘기털이라도 200만원이면 살 걸?' 등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중저가 아웃도어 브랜드의 패딩 점퍼는 모두 거위털을 사용했다는 조사에 네티즌은 "국내 중저가 패딩 점퍼들이 오히려 더 알차네", "국내 중저가 브랜드 패딩 점퍼 2년 전에 샀는데 눈발에서 뿜어져도 아직까지 따뜻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위하시는 분들 어느 가게 운영하시는지 밝히고 하세요.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외부식당이 얼마나 맛있으면 구내식당한테 밀리나", "조미료에 찌든 식당 밥보다는 채소 위주로 콜라 먹을 수 있는 구내식당이 더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에 나서자 소상공인들이 집단반발했다. 구내식당이 한 가격에 밥을 팔아 골목상권이 쇠퇴한다는 주장이다. 네티즌은 "조금이라도 싸게 먹었다는데 왜 저들이 난리야", "맛도 좋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저렴해서 좋아요", "시위하시는 분들 어느 가게 운영하시는지 밝히고 하세요.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외부식당이 얼마나 맛있으면 구내식당한테 밀리나", "조미료에 찌든 식당 밥보다는 채소 위주로 콜라 먹을 수 있는 구내식당이 더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구내식당이 외부인한테는 더 비싸게 받으면 되지 않나?", "구내식당 일반인 이용은 제한하자. 정작 직원들은 정신없어서 밥 못 먹는다" 등 옹호 의견도 있었다.

김은총 기자 kec@

오늘의 **미국남**

www.baekn.com

감성멜로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 엠태웅



배극남닷컴은 19일 '일리 있는 사랑'의 주연배우 엠태웅을 만났다. 엠태웅은 이날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일리 있는 사랑'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12월 1일 첫 방송되는 '일리 있는 사랑'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게 된 여주인공 김일리(이시영)와 첫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녀 같은 아내를 지켜봐야 하는 남편 장희태(엠태웅), 그리고 일리를 보며 처음으로 여자라는 존재에게 설렘을 느끼게 된 김준(이수혁)의 사랑을 그린 감성 멜로 드라마다. 엠태웅은 극중 여주인공 김일리의 운명적인 마지막 사랑이자 아내에게 뒤늦게 찾아온 새로운 사랑을 바라보는 남편 장희태 역을 맡았다. 엠태웅은 '일리 있는 사랑' 출연에 대해 "극중 희태의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와 같아서 대본을 보고 상상했을 때 다가오는 게 많았다. 그래서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극중 엠태웅의 직업은 수산연구소 연구관이다. 특이한 직업을 연기하게 된 소감으로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생선들이 그냥 생선이 아니라 각자의 사연과 인생이 있는 애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엠태웅은 극중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봐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 굉장히 속이 상했다. 희태라는 친구가 나보다 나하고 성향도 비슷하다"며 "연기를 위해 실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상상해 보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아내에게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엠태웅은 "불륜 드라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아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누구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없는 그런 일리 있는 드라마"라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당부했다.

오연미 기자 yerin2837@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 1 허니버터칩 칼로리, 얼마인지 보니... "짜장면 반 그릇?"
- 2 여수 해상케이블카 내달 개통, 통영 케이블카와 '가격'
- 3 서울시 내년 전기버스 도입, 전기택시는 벌써 운영 중
- 4 뉴욕 축구장 크기 옥외광고판 화재 '대박'
- 5 파리 북유학생 탈출, 나머지 북유학생도 종적 감춰

FILCO (주)필코인터내셔널 **동부화재** 생신물 책임배상보험 1억원 가입

슈퍼밀리언 헤어라 쓰고 기적이라 읽는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뿌리는 순간
마술처럼 탈모, 대머리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제, 외출도 만남도 즐거워집니다!

명품흑채, 슈퍼밀리언 헤어 -



슈퍼밀리언헤어 휴대용 세트
파격 할인판매!!
45,000원 → 29,000원

사용 전



10초면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부분도
마술처럼 감쪽같이
커버됩니다!

사용 후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 머리빠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신분
- 오랜 기발 사용으로 인해 답답하신 분
- 10년전 자신감을 원하시는 분
- 가르마 부위의 머리빠짐이 고민이신 분
- 안전한 흑채(중증제)를 원하시는 분

검정 No.1
흑갈색 No.2
갈색 No.3

국내최초, 흑채
임상실험 완료!!

흑채를 사용하면 모공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겨
탈모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담 및 주문
무료 전화 **080-582-0119** **취급점 모집**

자연파 **club 헤어마인드** **www.hairmind.co.kr** **빠른배송
안심배송**

* 자연파(自然派) 클럽 헤어마인드를 방문하시면 필코의 다양한 천연성분 헤어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최윤열의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경제민주화 내용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만 국한할 일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은 국민이 주인답게 사는 경제를 이룩하는 것일 겁니다.

4번째 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요. 800여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 갈등 문제 해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어려울 것입니다.

IMF 경제 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란 것 자체가 일반화되지 않았습니.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조는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기업은 생물체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규모도 확대하고 고용도 증가시킵니다.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면 축소 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조단체는 고용 축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그래서 생긴 것이 비정규직 양산이지요.

기업 입장에서 고용의 유연성도 보장되고 인건비 부담도 줄어드는데 비정규직을 선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경제민주화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노조 민주화입니다. 1980년대 초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졌던 바세나르협정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보다 높아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동참한다. 사용자는 고용을 확대하고 기업 주요 현안을 노조와 협의한다. 정부는 기업 비용 감축을 위해 감세를 하고 사회보장제를 정비한다'는 것이 이 협정의 내용입니다. 우리 노조단체는 기업이 살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야 자신이 산다는 엄연한 현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포함 전체 근로자의 삶의 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베버는 고용시장이 경직될수록 취약계층만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맛있는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 과정에 이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요. 그 전이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라도 세웠으면 합니다.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 증가 위험 해소 방안이 전제되어야 하겠지요. 금융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높은 위험을 감수하라 합니다. 이 원리를 고용시장에 적용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신분이 보장된 정규직의 임금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신분이 불안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취업하는 젊은이들은 임금수준은 낮지만 고용 안정이 보장된 정규직을 택할지, 고용은 불안하지만 임금수준이 높은 비정규직을 택할지 본인이 선택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증권산업에 이와 비슷한 임금구조가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세정의를 통한 공평과세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있는 분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반 자본주의적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국민들이 과거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세

금을 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무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1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개세주의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되 취약계층에 대해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근로자 중에서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층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전체 GDP의 24% 정도 된다는 것이 정설인 것 같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원 정도라 합니다. 이는 미국의 2.7배, 일본의 2.2배, 영국의 2.1배 수준이며 OECD 평균보다 거의 1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연 120조원 이상의 세원이 확보되고, 평균 세율 20%만 적용해도 연 20조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건전한 한국자본주의 발전을 위하고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과감하게 추진하던 지하경제 양성화 분위기도 경제가 어렵다는 구실로 유아무아되는 느낌입니다. 국제정의 지하경제 양성화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이 정부 조세정의 후퇴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세수 늘린다고 모든 기업을 세무조사하는 것이 문제지, 근본적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대다수 국민이 희망하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대통령님,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거 당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공약은 책임지고 시행하시는 것이 지속가능한 한국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의중의 휘두루미두루

말만 앞선 혁신, 방법을 바꿔보자

'작심삼일(作心三日),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정치권의 셀프혁신 바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갈수록 흐지부지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정치권에선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악화돼 있거나 국민의 불신이 커질 때마다 마치 복안이라도 되는 듯 '혁신안'을 들고 나왔다. 상향식 공천, 완전국민경선제 등 정당 제도를 고치는 일부터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같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까지 내용이 다양하다. 워낙 자주 들 어와서인지 이제는 익숙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기득권층이 스스로 가진 권한을 버린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해탈한 자가 아니고서야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가진 걸 내놓을 이유는 없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은 모두 9가지다. △2015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세비 혁신(무회의 무세비, 불출석 무세비) △독립적 세비조정위원회 설치 △겸직 금지 확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국민소환제 도입대신 윤리위 강화 등이다.

그러나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의원총회에서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다. 그러더니 이제는 당 대표관 사람과 혁신위원장이란 사람이 서로 혁신안 처리 권한을 두고 다투기까지 한다.

야당도 다를 바 없다. 아예 '무관심'이 기조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는 도대체 뭘 하는지 존재감마저 사라진 지 오래다. 소속 의원들도 관심이 없다. 새해 예산안 심사 등 당장 현안 처리에 바쁜 탓도 있지만, 애써 외면한 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친신안과 끝에 각 당이 혁신안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대부분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다. 다시 말해 당내에서 총의를 모아도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번 혁신안도 물 건너간 듯 보인다.

이런 편 차라리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목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뜻의 '개혁'은 자기가 아닌 타인 또는 타조직을 바꿀 때 쓰는 표현이고, '혁신'이란 단어는 스스로 바꾸려 할 때 사용한다.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혁신이란 거창한 단어만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여야가 뜻을 모아 국회 차원의 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게 정도일 수 있다. 명망 있는 외부 인사들을 모셔다 전권을 쥐어주고 '정치를 개혁해 주십시오' 하면 최소한 시도에만 그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국회 차원의 개혁위를 꾸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개혁이란 혁신이든 의지의 문제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쉬운 것부터 차분하게 바꿔야 한다. 갑작스런 변화는 강한 저항에 부딪힐 뿐이다.

정치경제부 기자 zerg@

객석

사고력 수학이 필요한 까닭



조 경 희 시애틀 수학교육연구소장

논하기에 앞서 과거와 현재의 교육적 현실을 돌아보고 싶다. 모든 인간 행위의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는 것도 현실의 바탕 위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보낸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대부분 아이끼리의 자유시간을 친구와 형제들과 보냈다. 그 속에서 깊은 유대관계와 함께 스스로 상상력과 자발성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탐험하고 인생을 경험할 기회를 누릴 수 있을 때에만 논리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수학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저학년일수록 수학을 좋아한다. 이유 중 하나가 저학년 때 수학이 그만큼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사고력 수학은 아이들이 가까운 데서 늘 보던 것에서부터 시작해 수학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도와준다. 아이들은 자신이 관찰하고 체험한 것을 되짚어보고, 기억을 되살리고, 앞뒤로 짜 맞추어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을 형성하고 원리를 찾아 가는 활동이 바로 사고력 수학이다. 놀이 같은 수학적 체험으로 수학의 기초 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

'수학' 하면 보통 연산이나 도형 문제를 떠올린다. 수학 교육은 단지 수를 다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수학 교육의 진정한 목표다.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익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얻는 사고력의 힘이야말로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사고력 수학은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하고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부모가 직접 사고력 수학을 접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목표와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각각각색이어서 경합해 봐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다. 필자는 사고력 수학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자수첩

空論에 그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



김 희 준 정치경제부/h0913@

18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지난 1년간의 논의를 정리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했다. 앞서 안전도와 부안에서 핵폐기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겪은 터여서 사용후핵연료만금은 공론화를 거쳐 처리나 처분 방법을 정하자고 논의를 진행한 지 10년이 됐다. 공론화위는 이런 과정의 반복을 막고자 지난 10월 출범했다.

하지만 정작 1년 넘게 토의를 거듭해 내놓은 결과물은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빈약한 모양새다. 오는 2055년을 전후로 지하 500m 이하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며, 중간저장시설은 원전 안, 또는 밖에 둘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핵발전소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

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1만3000여톤에 이르러 8년 뒤에는 포화상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장 시급한 중간저장시설에 대해 기존 원전 내 시설을 확장할지, 아니면 새 부지에 지을지부터 결정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견해는 전무했다. 처분 부지의 경우 원전 내외를,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건식과 습식을 모두 언급한 것은 결국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난 1년간의 공론화가 결국 공론(空論)에 그친 셈이다.

물론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의 중대성 때문에 신중한 결 과를 고민해야 하는 공론화위의 모습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론화위의 출범 이후 고준위방폐장 설립 방안을 놓고 공론화는 차치하고라도 여론의 논란 거리도 되지 못했다. 이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홍원장은 내년 4월까지 활동시한을 4개월 연장해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엔 공론화위의 고심이 엿보이는 뚜렷한 결과를 고대한다.

이투데이

社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혁,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문화부, 광고접수, 광고문의, 구독신청, 배달안내, etc.

인류의 미래는 '마을'에 있다!

2014 하반기 화제의 신간!



마을의 재발견 작은 정치·경제·복지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김기홍 지음 | 350원 | 15000원

국가는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고 세계화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 인류는 지금 점점 더 심해지는 자연재해와 자원 위기, 부의 편중과 사회적 갈등, 불안한 사회안전망과 복지 위기, 저출산·고령화 등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포위되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도 국가도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안은 '마을을 살리는 것이다. 인류의 오랜 지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village community)'를 새롭게 보고 그 가치를 활용한다면, 국가는 고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을 것이며 개인의 삶은 보다 인간다워질 것이다.

국가는 부의 편중, 방사능 유출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계층 간 갈등,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저자는 '마을 공동체'를 대안으로 내세운다. 마을을 되살리고 마을 간의 유기적 연대를 추진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지금보다 나은 것이라고 강조한다. **경향신문** 마을의 작은 정치, 작은 경제, 작은 복지는 국가 단위의 정치, 경제, 복지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그러기에 국가가 마을 공동체 복원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연합뉴스** 사회 갈등과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선일보**



김기홍 농민신문 기자. 고려대 사회학 박사. 그동안 농촌 사회·경제·지방·문화 등의 분야를 취재해왔으며, 지금은 농촌 마을의 사회지분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다문화는 물론, 미국과 일본의 지역 활성화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연구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문가들과 협력, 마을학(villology)의 체계화와 세계마을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마을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두고두고 읽을 책만 만듭니다. 문의 02-720-3131



좀 아는 사람이라면 너도 나도 끼고 산다!

2,200만 빅데이터를 통한 Code9이라 다르다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카드체계, Code9
2,200만 고객이 행복해질 그날까지
신한카드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Code9시리즈 100만 돌파기념 이벤트

- ▶ Code9 Day(11월 9일, 19일, 29일) 신한카드 모든 개인회원님께 드립니다.
무료커피1잔 증정(전국 풀바셋 매장) / 롯데월드몰 아쿠아리움 30% 할인 / 전가맹점 2~3개월 무이자 / 영화(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1천원 캐시백(사전 홈페이지 응모) ※ 신한BC / 선불 / 기프트카드 제외
- ▶ Code9시리즈 상품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특별한 경품을 드립니다.
Code9시리즈 상품 : 신한카드 23.5° / S-Line / 미래설계 / The CLASSIC-Y
- ▶ 나만의 Code 확인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코드별 경품을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연회비 23.5°(일반 1만원), 미래설계(일반 1만5천원), The CLASSIC-Y(일반 10만원), 연세시 연체이율 연 23.0~29.5% 신청권 상품설명 및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1544-700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141103-1133-001호(2014. 11. 6 현재)

시장점유율 1위 카드사 ShinhanCard

BIG to GREAT  신한카드



퍼스트 클래스 스토리 / 시몬스 ■ 20면



한전 해외 매출 '파워 업' ■ 21면



최근 전셋값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시장도 좋지만 미분양이나 기존 주택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GS건설이 문을 연 '미사강변센트럴하이' 모델하우스. 노진환 기자 myfixer@

올해가 가기 전에... 여기가 핫 플레이스!

Cover Story

뜨는 분양시장, 막바지 열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65% 역대 최고
“빛 내서 전세? 이 기회에 내집 마련”
서울·수도권·지방서 가을 분양대전
미분양도 인기...건설사들 할인 나서

올해 분양 시장은 말 그대로 '핫(HOT)'했다. 수도권을 비롯해 그동안 침체 상태를 보였던 지방시장에서도 '내놓으면 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섰다. 이에 올 하반기 아파트 거래량 또한 늘어 지난 10월, 6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수도권 내에 거주할 경우에도 높은 집값으로 인해 더욱 쉽지 않다. 실제로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기 집을 가진 가구 비중은 결혼 1년 미만 가구가 26.1%, 결혼 5년차 41.8%, 결혼 10년차 48.3%, 결혼 30년차는 66.7%였다. 4가구 중 1가구는 '내 집'을 갖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지만 결혼 10년차 가구 중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경우는 50%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결혼 10년차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가구의 비중은 서울이 10가구 중 3가구에 불과했고 경기도도 3.5가구였다. 그

나마 상황이 낫다는 광주와 전북의 경우에도 10가구 중 5가구가 결혼 10년차에 내 집을 갖고 있지 못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전세가의 상승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전세금이 뛰면서 아파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KB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64.9%로 1998년 12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지역 단지의 경우 80-90%를 넘어서고 있지만 넘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줄고 있어 전세가 고공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전세 세입자들의 경우 어차피 빛을 내서 전세를 사느니 이 기회에 내 집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적지 않다. 서울 내 마련이 여의치 않은 경우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 상대적으로 넓은 광수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올 3분기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이전 분기보다 1만2800가구나 줄어 미분양 소진율이 빨라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청약제도에만 매달려 집을 사려고 하기 보다는 기존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일부 미분양 물량에 할인 분양가를 적용하는 등 공격적인 분양 조건을 내놓고 있어 소비자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청약 이용시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저렴한 분양가에 동호회 선택이 가능하고 즉시 입주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다. 여기에 정부의 LTV·DTI 완화 조치와 다담돌 대출 확대 시행, 기준금리가 연 2%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자금 마련도 쉽다. 전세금에 소액만 보태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셈이다. 구성현·박태진 기자 carlove@

커버스토리 18-19면

현대건설 '퇴계원 힐스테이트'

계약금 정액제로 부담 뚝... 잔여물량 특별분양

올해 4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퇴계원 힐스테이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와 뛰어난 서울 접근성, 역세권 입지로 실수요자와 주택수요자의 이목을 끌었던 이 아파트도 또 한번 관심을 받고 있다.

입지와 상품은 물론, 좋은 브랜드와 즉시 입주 가능한 장점으로 인해 전세값 상승과 전세난이 여전히 예상되는 하반기에 내 집 마련의 기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전세가 상승에 고민 중인 수요자에게 딱 맞는 아파트로 추천되고 있으며 다양한 특별분양 혜택까지 주어져 더욱 부담없는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건설업계 최고 신용등급과 시공능력평가 5년 연속(2009-13) 1위 현대건설이 분양 중인 남양주시의 퇴계원 힐스테이트는 입주자들 중심으로 힐스테이트의 특화 설계에 대한 자부심과 살기 좋다는 입소문이 나고 있다. 여기에 뛰어난 입지, 특별한 분양 혜택에 힘입어 잔여물량 소진뿐만 아니라 높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계약금 정액제 실시, 잔여세대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 등 특별분양 조건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계약금은 전용 84㎡는 2000만원, 전용 99㎡는 2500만원이다. 계약 후 즉시 전매도가



능하다.

퇴계원 힐스테이트는 지하 2층~지상 12~22층 21개동 총 1076가구 규모이며, 전용 84㎡ 756세대, 전용 99㎡ 320세대를 분양 중이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99㎡로 이뤄져 있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퇴계원 힐스테이트는 경춘선 퇴계원역이 단지 옆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며 전철을 이용해 3개 정거장이면 서울로 진입이 가능

하고 특히 지난해 개통된 경춘선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용산까지 30분대에 닿을 수 있다. 단지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43번·47번 국도 이용이 쉬워 서울 강남권까지 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으며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속한다.

현재 계약세대에는 소정의 사은품 제공과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분양사무실은 퇴계원 힐스테이트 단지 내 상가에 있다.

대림산업 '김포 e편한세상 캐널시티'

특히 단열기술·층간소음 저감 설계 적용

대림산업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717-2번지(Cc-05 블록) 일대에 'e편한세상 캐널시티'를 이달 중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동으로 이뤄지며 총 639가구 규모다. 전 가구를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로 구성했으며 총 6개 타입의 평면을 선보인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 94가구 △84㎡B 359가구 △84㎡C 139가구 △84㎡D 23가구 △84㎡E 21가구 △84㎡F 3가구다.

'e편한세상 캐널시티'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루 갖췄다.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장기역(가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내에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입점할 예정이다. 또 단지 주변으로는 대규모 수변 공원과 문화 상업지구 조성돼 김포한강신도시를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시는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생활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e편한세상 캐널시티'가 입지한 주변 일대는 교통과 주거, 상업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북방 주거지역으로 개발된다. 단지 주변으로는 공원 및 문화 상업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리베니체'가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는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어워드에서 수



상한 아이템을 적용해 인테리어에 세련미와 깔끔함을 더했다. 일반적인 직사각형 형태에서 탈피해 정사각형으로 디자인한 스위치, 온도조절기, 콘센트, 월패드 등이 장착된다.

실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시설도 적극 도입된다. e편한세상에서 자체 개발한 쌍방향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이 전 가구에 설치된다. 이를 통해 입주자들은 에너지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에너지 소비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e편한세상 캐널시티'에는 특히 받은 단열설계 기술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특히 받은 층간소음 저감 설계도 적용된다.

모텔하우스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717-2번지(Cc-05 블록) 인근에 마련됐으며 21일 개관한다.

한화건설 '위례 오벨리스크'

인기 좋은 소형 오피스텔... 상품성 뛰어나

한화건설은 다음달 위례신도시에 오피스텔 단지 '위례 오벨리스크'를 분양한다.

위례신도시 업무용지 24BL에 위치한 '위례 오벨리스크'는 오피스텔 3개동, 321실(지하 5층~지상 16층, 전용면적 23~84㎡)과 상가(지하 1층~지상 2층, 전용 약 1만6000㎡)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면적별로 전용 △23㎡(7평) 68실 △33㎡(10평) 8실 △47㎡(14평) 22실 △50㎡(15평) 48실 △73㎡(22평) 105실 △85㎡(26평) 70실로 나뉜다.

위례 오벨리스크가 가진 뛰어난 상품성은 주목할 만하다. 공급 물량이 인기 소형 평형대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이다. 이 오피스텔은 신혼부부들에게도 눈길을 가는 물량으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전용 73㎡, 85㎡ 평형은 인기가 높은 소형 평형대임에도 위례신도시 내 공급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이 단지는 아파트의 대체상품으로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평형은 3면 개방형 남향으로 배치해 일부 고층 세대에서는 막힘 없이 탁 트인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

'위례 오벨리스크'는 강남권 최대 규모 신도시(약 4만3000가구, 관교의 1.5배)이자, 사통팔달의 강남권 입지를 가진 위례 신도시에 위치하게 된다.

강남과 분당, 관교로 연결되는 특급 교통체계는 위



례신도시가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 단지는 강남과 바로 연결되는 위례-신사선의 위례중앙역(예정)과 친환경 신교통 수단인 트램(노면경전철, 계획) 역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정역(8호선, 분당선)과 장기역(8호선), 우남역(신설예정) 등도 이용이 편리하다.

모텔하우스는 송파구 장기동 625-1번지(지하철 8호선 북정역 1번출구)에 위치하며, 개관은 12월 초 할 예정이다.

신원철 한화건설 상무는 "위례 오벨리스크"는 강남권 최대 규모 신도시에 위치해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사통팔달의 교통을 갖춘 브랜드 오피스텔"이라며 "뛰어난 입지와 주변환경에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될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K건설 '창원 월영 SK 오션뷰'

산과 바다가 보이네... 자연친화형 아파트

SK건설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서 '월영 SK 오션뷰(월영 SK Ocean View)'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월영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월영 SK 오션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1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시공돼 인기 스카이라인을 바꿔놓을 전망이다. 전용면적 59~114㎡, 아파트 8개동 총 932가구로 구성되며 전용 84㎡이하 중소형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중 전용면적 기준 59㎡ 9가구, 73㎡ 16가구, 84㎡A 237가구, 84㎡B 126가구, 100㎡ 64가구, 114㎡ 12가구 등 46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일대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로 주거 선호도가 높고 지난 15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전무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잠재 수요가 많다는 평가다.

월영 SK 오션뷰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로 일조권을 확보하고 채광성을 높였다. 무학산과 마산만이 인근에 있어 일부 세대는 산과 바다가 보이는 더블 조망이 확보되며 단지 주변으로는 무학산과 대곡산, 해양관광지 돌섬이 인접해 쾌적한 웰빙형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혁신적 평면 구성도 돋보인다. 3~5베이(Bay, 아파트 전면에 배치된 방이나 거실) 판상형 평면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일부 세대에는 서비스 공간



인 '알파공간'을 제공해 입주자 취향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단지 인근의 롯데마트, 마산합포도서관 등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해운·신월초, 마산서·해운중, 경남대 등 명문학교와 마산 최대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월영 SK 오션뷰는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3순위 청약 실시한다. 12월 3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8일부터 10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17년 9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48만원대이며, 중도금(분양가의 60%) 이자후불제 혜택을 제공한다. 견본주택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5-9번지에 마련돼 있으며 오는 21일 개관 예정이다.

복합문화공간

공연 · 연주회 · 전시 · 런칭쇼 · 세미나 · 웨딩

총면적 12,000 제곱미터의 파티오나인은 50석부터 1,000석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세미나에서 패션쇼, 박람회까지 이르기까지 어떠한 형태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PATIO9
Banquet & Convention
파티오나인

Performance

Concert

Exhibition

Launch show

Convention

Seminar and

Wedding

연주회 및 공연

두타 패션쇼

삼성전자 신제품 전시

불거리 향수 런칭쇼

세미나 및 포럼

국내 최상급의 복합문화공간 "파티오나인"

예약 : T. 02-517-7080-1, 02-517-7070 / www.patio9.com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6-24 파티오나인

GS건설 '보문 파크 뷰자이'

종로·광화문 출퇴근 직장인에 안성맞춤

GS건설은 서울 성북구 보문로 13길 61번지 일대 보문 3구역에 재개발한 '보문파크뷰자이'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17개동, 전용면적 31~84㎡ 총 1186가구 규모로, 이 중 45~84㎡ 48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일반공급으로 선보이는 주택형은 △45㎡ 161가구 △59㎡ 24가구 △72㎡ 147가구 △84㎡ 151가구 등 총 483가구가 구성돼 있다. 특히 세대분리형 평면으로 △84㎡ 39세대가 포함돼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보문파크뷰자이'는 6호선 보문역과 창신역 및 12호선 신설동역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를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5-6점거장 안에 종로 및 광화문에 닿을 수 있고 보문로, 왕산로 등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용이한 직주근접형 단지다. 또한 신설-유이 경전철도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인 만큼 최적의 교통 환경을 갖춘 단지가 될 전망이다.

특목고가 인접해 있다. 또 인근에 고려대, 한성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등 대학들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이 아파트는 최신 에너지절감 시설을 적용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지하-1층 엘리베이터 홀의 공용부와 현관센서등·복도등·화장대 등 세대 내 전력소모가 적고 밝은 LED 조명을 적용했다.

또한 세대 내 일괄소등 스위치와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가 설치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해 준다.

모델하우스는 보문역 인근인 서울 성북구 보문동 1가 31번지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7년 1월 예정이다.

이 단지는 소풍물, 병원, 공원 등 인접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도 장점이다. 이마트 청계점, 동대문 쇼피타운 등 대규모 복합쇼핑센터가 가깝고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휴식과 산책, 운동이 가능한 송인근린공원과 낙산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동신초, 명신초, 대광중고, 한성여중고 등이 위치해 있고, 서울 과학고, 서울 국제고 등

포스코건설 '구리 더샵 그린포레'

발코니 무상확장 등 최대 1900만원 혜택

부동산 시장에 새 아파트가 쏟아지는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려한 수요자에게 '합리적 가격에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아파트를 고르는 안목이 중요하다. 이에 포스코건설이 합리적 가격에 도심 입지 조건을 갖춘 단지를 경기도 구리시에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 제1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인 '구리 더샵 그린포레'는 합리적 분양가를 책정하고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했다.

포스코 제1직장주택조합 사업임을 감안해 74㎡~84㎡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를 3.3㎡당 1242만원부터 책정했다. 조합원 분양가(3.3㎡당 평균 1458만원)보다 일반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 수요자들이 분양가 차이를 프리미엄으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인접해 구리시에서도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진 도심권역에 조성됐다. 이로 인해 교육과 교통, 문화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포스코건설의 구리지역 도심 내 첫 '더샵' 브랜드 론칭 사업임을 감안해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가구당 110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외곽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해 강남과 강북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며 강남까지 25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에 직장을 둔 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특히 이 단지는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최근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까지 기간이 짧은 '구리 더샵 그린포레'는 전세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분양 이후 입주까지의 기간이 짧아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7개동, 전용면적 74~114㎡, 총 407가구가 구성되며 이 중 28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계약금 정액제(1000만원), 중도금 60% 무이자 지원한다.

'구리 더샵 그린포레'는 서울의 관문인 교문사거리에서

분양 홍보관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교문사거리에서 조성돼 있다.

SH공사 '세곡2지구 8단지 공공분양주택'

세자녀·노부모 부양가구라면 '특별분양'

서울시 SH공사가 올해 마지막 물량 분양에 나선다. SH공사는 연내 마지막 분양 물량인 세곡2지구 8단지 공공분양주택을 이달 말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곡2지구 8단지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55가구가. 이는 지구 내 마지막 분양물량으로 전용면적 101㎡ 36가구, 114㎡ 19가구가 구성된다. 특히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84㎡ 초과 공공주택 공급은 앞으로 전무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가 예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지는 단지 주변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수사·복합·장지역과도 인접해 있어 뛰어난 교통망도 갖췄다. 무엇보다도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세곡 2지구 8단지는 올해 마지막 공급물량이자 공공주택물량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분양되는 곳이다. 입지 등 주변환경을 고려했을 때 앞서 분양된 물량이 완화된 만큼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방법, 일정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곡2지구 8단지는 25일 청약에 돌입할 예정이다. 분양 대상자는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나뉜다. 특별분양의 경우 전용 101㎡, 114㎡는 3자녀, 노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일반분양의 경우 전용 101㎡는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이 분양 대상자에 해당된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서울시 기준 60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한다.

한편 SH공사는 지난달 강남구와 서초구, 중랑구 일대에서 신규 268가구를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485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했다.

또 전용 114㎡에는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서울시 기준 1000만원)만이 분양 대상자다. 세곡 2지구 8단지는 6단지과 함께 2015년 8-10월로

대우건설 '부산 대신 푸르지오'

지하철·고속도로·터널 등 '사통팔달' 교통망 자랑

대우건설은 28일 부산광역시 서구지역의 전통적 주거타운인 서대신동에 '부산 대신 푸르지오'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일반분양을 진행한다.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212번지 일원에 지어지는 이 아파트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4층 아파트 8개동, 전용면적 39~115㎡ 959가구 규모다. 이 중 74㎡ 4가구, 84㎡ 428가구, 102㎡ 103가구, 115㎡ 60가구 총 59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 단지는 공급 평형대가 고르게 분포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보 5-15분에 초·중·고교로 통학할 수 있으며 구덕로 학원가도 걸어서 갈 수 있다.

'부산 대신 푸르지오'는 서대신동에 재개발 예정 상품 중 가장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서구에서 2년 만에 공급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향후 서대신6구역과 함께 약 1800가구 규모의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을 형성해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학교병원 및 자갈치시장, 광복동 대형상권의 상업시설과 구덕공산운동장, 부산중앙도서관, 민주공원 등 문화 인프라의 이용도 편리하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한 교통 환경이다.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과 동대신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 단지로 도심 출퇴근이 용이하며 남해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명지IC)의 접근성이 높아 광역교통 또한 편리하다.

이 아파트는 개방감을 극대화한 설계를 선보인다.

부산터널, 구덕터널, 대티터널을 이용해 중심가로 이동 또한 가능하다. 서부산권 선호학군에 포함되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또 푸르지오만의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상품들도 적용된다. 실별로 각방 온도를 설정해 난방비를 절감하는 실별 온도제어 시스템, 지하주차장 LED조명 제어 시스템 설치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000만원대 초반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1호선 대티역 4번출구 인근(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324-1번지)에 마련된다.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KB기업금융,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성공 스토리를 써 갈 수 있도록 KB국민은행은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KB WISE 컨설팅 | 수출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수출입금융 서비스 | 우량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동반자 KB Hidden Star 500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매출 '파워업'...경영개선 '빛' 보이네

〈3분기 37% ↑ 2조3103억〉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의 해외사업 분야가 3분기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일취월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최근 3분기 누적 연결 결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한전에 따르면 3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342.3% 증가한 4조9179억원, 순이익은 615.2% 증가한 2조3218억원을 기록했다.

한전 측은 이번 3분기 손익실적이 개선된 주된 이유는 전기 판매 수익 증가와 연료비 감소 외에도 해외사업 수익 확대 및 방만경영 해소, 부채감축 등 강력한 자구 노력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기판매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한 39조1718억원, 연료비는 14.3% 감소한 15조5172억원, 구입전력비는 8.9% 증가한 8조8957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전의 해외사업 매출액이다. 한전은 UAE원전사업 매출액 증가, 멕시코 노르데르 발전사업의 본격 상업운전 개시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한 2조3103억원(37.0% 증가)을 실현,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러한 해외사업 매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내 경영실적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법인의 지분별 평가의역시 주요했다. 평가다. 실제로 중국 산서사업의 수익의 확대, 사우디 라비 발전소 준공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810억원(171.8% 증가)을 나타냈다. 이같이 한전의 해외사업 분야가 수익 확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그간 한전이 추진해 왔던 견실한 해외사업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한전은 최근에도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인 트라킨도(Trakindo)그룹 ESGL(Essential Strategic Group Limited)사와 석탄회사인 MMKU(Moa Maju Kurnia Utama)사와 연간 110만톤 생산규모의 SNG 플랜트 건설 및 운영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

JDA에 따르면 참여사는 인도네시아에 풍부한 저열량 석탄과 한전에 보유한 석탄가스화 원전기술을 활용, 합성 천연 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고, 2020년부터 국내외에 판매하는 사업개발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타당성조사, 파이낸싱 등 전반적 사업개발을 총괄하고 자회사인 켈코우데를 통해 석탄가스화 제반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지 파트너 ESGL은 트라킨도 그룹의 에너지분야 투자전문회사이고, MMKU는 대규모 저열량탄 보유 광산회사로 양사는 플랜트 부지 확보, 인허가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총 투자비 약 3조원대 프로젝트로, 설계부터 기자재 제작, 건설, 운전까지 국내 관련 기업이 공동 참여할 수 있어 국가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국내 도입 시 고가의 LNG 수입 대체 효과, 한전의 전기료 인하효과까지 기대된다. 한전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베트남, 태국 등에서도 석탄 가스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리스크가 많은 해외사업을 다년간의 경험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도 한전 해외수익 확대의 주요 원인이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 4월부터 '해외 사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기준 수익률 모델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한국전력 3분기 수익 추이

영업이익	4조9179억원 (342.3% 증가)
순이익	2조3218억원 (615.2% 증가)
해외사업 매출액	2조3103억원 (37.0% 증가)

2014년 한국전력 해외사업 추이

- 8월 베트남 송하우 3 민자발전 사업에 대한 승인 획득
- 필리핀 일리한 가스복합화력 PF 차관상환 완료
- 7월 몽골 제 2발전소 개발 '독점 협의권' 확보
- 8월 미국 뉴욕에서 기업설명회 개최
- 5월 25억 달러 규모 사우디아라비아 중유화력발전소 준공
- 4월 하노이 산업박람회 참여 중소기업의 5,084만 달러 수출협상

3분기 순이익 6배 ↑ 2조3218억 기록

전기로 수익·방만경영 해소 노력 결과

견실한 해외사업도 수익확대에 한몫

동남아서 아프리카·남미로 무대 넓히고

신재생·자원개발 등 사업영역 지속 확대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사업 다변화 추구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이익 극대화 계획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리스크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던 해외 사업을 중동을 비롯해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그 무대를 점차 넓히고 있다. 한전은 현재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원전·화력발전 분야를 넘어 신재생, 자원 개발, 송배전 컨설팅 분야 등으로 해외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사업을 통한 누적 매출액이 12조2000

억원에 달하고 있다. 누적 순이익도 1조7000억원에 달해 외화 획득 및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 현재 건설 중인 UAE 원전 사업을 포함해 운영 단계인 필리핀 사업(1739MW), 중국 사업(6826MW), 요르단 알 카트라나 사업(373MW), 사우디 라비 사업(1204MW) 등에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국내 수입에 연연했던 과거와는 달리 해외 수익의 확대를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또 한전은 앞으로 해외 사업 운영 및 개발을 위해 글로벌 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HVDC(초고압직류송전), 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등 미래 에너지 유망기술을 적극 개발·활용해 해외 전력 사업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복안이다.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기적 수익성 재평가를 통해 사업 구조를 더욱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와 한전은 급변하는 전력에너지 분야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전력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하는 등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전은 오는 2020년까지 총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원격 검침 '지능형 계량기(AMI)'를 전 고객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전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2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해 대내외 전문가 집단을 통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2020년까지 해외 사업에서 전체 매출 대비 20% 수준인 16조5000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구성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中企제휴 2만원대에

도로소, 휴게소 매장 '청년창업 지원 공간'으로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고자 한국도로공사가 출시한 '하이패스 행복단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이패스 행복단말기는 지난 9월 출시된 이후 한 달 만에 16만대가 시중에 보급됐으며 일일 판매량은 평균 3900대에서 8700대로 급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도공은 지난 4월 2만원대의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을 위해 단말기 업체 5곳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 도공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필수 기능 위주로 제품을 개발하고 도로공사는 100만대 한정 물량을 대상으로 대당 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단말기 가격을 2만5000원까지 낮췄다"고 말했다. 하이패스 행복단말기는 우리은행·하나은행 금융상품과 연계하면 무상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

도공은 내년 하반기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 하이패스 이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2020년에는 고속도로 전 구간에 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요금을 낼 수 있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공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고자 청년들에게 휴게소 매장을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청년창업 매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지난 7월에는 하남·안남의 광장과 황성 등 전국 9곳의 휴게소에 29개의 청년창업 매장이 문을 열었다.

이번에 문을 연 매장은 풍효소를 넣은 닭볶음탕, 파인애플·달걀·굴소스를 넣은 커리라이스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 식사 매장 과 완구·생활용품 등을 파는 지식창업 매장 등이다. 지식창업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제작과정을 볼 수도 있다.

도공 관계자는 "지난 4월과 5월 휴게소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을 공모해 385개 팀 630명이 참여했다"며 "심사를 통해 29개 팀 61명의 창업자를 최종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와 "창업자들에게는 인테리어 비용, 창업 전후 전문가 컨설팅, 판매기술 전수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며 "고객 반응이 좋으면 휴게소에 정식으로 입점해 계속 운영하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공은 휴게소 국민등급화로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앞장서고 있다. 휴게소 국민등급화는 5성급 호텔과 같이 이용객들이 휴게소의 서비스를 평가해 5성급·4성급·3성급 등으로 나누고 미리 알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된 것이다.

지난 9월까지 이용객들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공은 올해 안으로 등급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평가 결과는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휴게소 음식과 주유소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이 스마트'에도 올릴 예정이다.

박상영 기자 sym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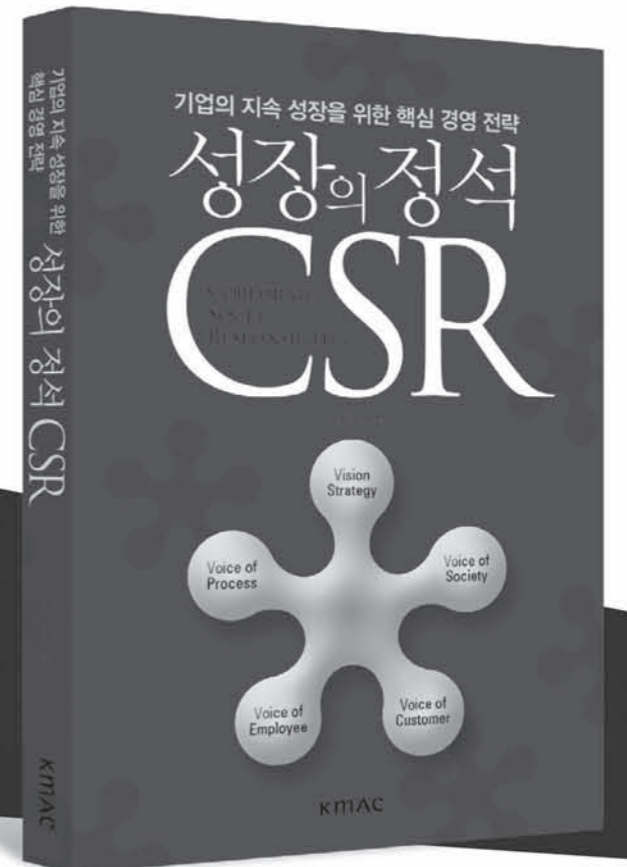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하이패스센터를 방문해 '하이패스행복단말기'를 살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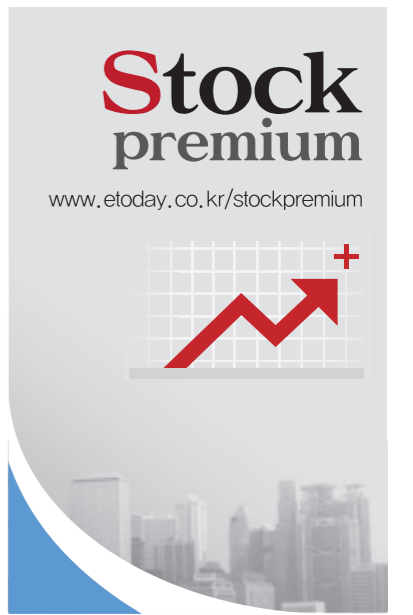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라!

팩트 기반 CSR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기업의 조직원들과 공유된 비전·전략 아래 고객과 사회의 목소리를 들어 프로세스를 고객과 사회의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은 팩트에 기반한 정보를 중심으로 기업의 자원을 인풋으로 시스템에 투입하고 성과를 낸다. 또한 그 성과·측정에 따라 피드백을 받아 개선을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인풋을 투입하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의 정석 CSR
이유택 저음 | 값 15,000원



左 이종석 右 걸스데이... '웰메이드' 아빠웃음

‘닥터 이방인’으로 중서 인기·공연매출 상승... 올해 흑자전환 예상

웰메이드에다가 이종석과 걸스데이 인기에 힘입어 올해 흑자전환에 성공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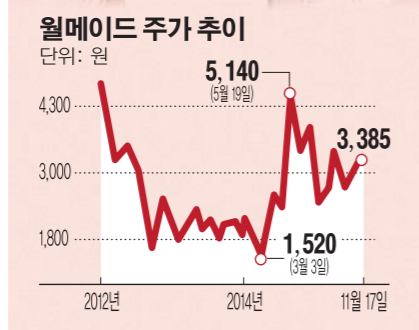
20일 웰메이드 관계자는 “지난 3분기는 6·7억원 가량 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4분기 역시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어서 올해 흑자전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19억5000만원의 적자를 낸 바 있다. 올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도 2억8156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종석의 인기가 올라가고, 걸스데이 헤리가 국민 애교녀로 등극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었다.

특히 중국 내 신한류 4대천왕으로 불리는 이종석의 경우, 지난 5월 ‘닥터 이방인’에 이어 최근 SBS 수목 드라마 ‘피노키오’로 연타석 흥행을 질 쫓음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피노키오가 첫 방송된 뒤 중국 웨이보에서는 드라마 관련 캡처 사진과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중국 팬들의 글이 이어졌다.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에도 피노키오가 등장했다. 피노키오가 서비스되고 있는 투더우에서도 드라마를 본 중국 시청자의 반응이 뜨겁다. 이미 수십만 중국 네티즌이 투더우를 통해 피노키오



오의 첫회를 시청했으며, 다음회를 궁금해하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피노키오가 성공을 거둔다면 현재 중국에서 2개의 CF모델로 활동 중인 이종석의 몸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웰메이드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 CF 러브콜이 밀려오고 있다”며 “2년간 10억원 정도의 계약 수준이었는데, 피노키오 이후

20억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19일 중국 베이징 팬미팅에 참석하는 이종석을 보기 위해 베이징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온라인으로 입국 영상과 소식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베이징의 751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약 50개의 현지 주요 매체가 이종석에 대한 뜨거운 플래시 세례와 관심을 쏟아냈다.

걸스데이도 웰메이드 실적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멤버 헤리가 MBC 예능 진짜사나이에 출연한 게 주효했다. 이를 통해 헤리는 국민 애교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헤리는 12월 방송 예정인 JTBC 드라마 ‘선암요괴 탐정단’에도 출연한다. 웰메이드 관계자는 “올해 걸스데이를 통한 매출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서태지와 MC몽의 공연 매출도 급증할 전망이다. 다음 달 30-31일 열리는 서태지공연은 총 2만 4000석 규모다. 내년 초까지 서태지 콘서트에 예정돼 있어 2015년 1분기 실적까지 반영된다. 특히 내년엔 MC몽의 전국투어가 시작되면 웰메이드에 대한 공연 매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송영록 기자 syr@

공시 돋보기

中 완리 ‘한국진출’ 팔 걷었다

삼성물산과 6억규모 테라코타 패널 공급 계약

대표적인 중국 내수기업인 완리인터내셔널이 한국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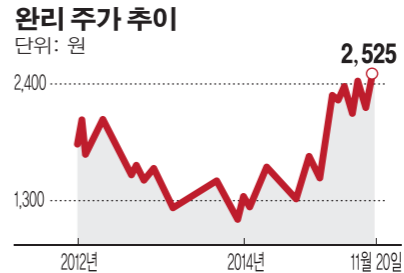
20일 완리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완리의 자회사인 만리유한공사(네이엔과 위례 신도시 삼성 래미안 아파트)에 테라코타 패널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6억7000만 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0.5%에 해당된다.

완리 관계자는 “이번에 래미안위례에 납품하는 테라코타패널은 중국 내 평균 가격 대비 50% 이상 비싼 최고급 품질의 제품”이라며 “납품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삼성물산과 첫 거래를 시작했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2009년 용인 래미안동전에 테라코타패널을 도입한 이래, 주요 프로젝트에는 테라코타패널을 외장 마감재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내 시장 진출을 시도해 왔던 완리는 이번 거래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완리는 현재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



하고 있는 국내 업체인 네이엔과 협력관계를 맺고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삼성물산과의 계약 이전까지는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국내 판공사를 위주로 영업활동을 펼쳐왔다. 판매실적은 삼성물산과의 계약을 제외하고는 약 2억원 가량을 기록했다.

완리 측은 “한국시장에서의 성공은 중국 내에서 완리에 대한 상품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 지사 설립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력하고 있는 테라코타패널과 함께 내장용 엔타타일에 대한 수요처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선영 기자 moon@

한샘이펙스 ‘내부거래’ 오너일가 ‘쫄쫄하네’

최양호 회장, 거래증가로 1억당 246만원 이득... 최근 5년간 18억 달해

한샘이펙스의 내부거래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양호 한샘 회장은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매출로 18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샘이펙스가 한샘 등 특수관계자를 통해 올린 내부 매출 금액은 158억원에 달했다. 전년도 전체 내부 매출액이 293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한샘이펙스의 내부 매출액은 지난 2009년 235억원을 기록한 뒤 2010년 208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1년 266억원, 2012년 268억원, 2013년 293억원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주춤했던 내부거래 비중도 다시 늘었다. 한샘이펙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 2009년 67.2%에서 2010년 58.8%, 2011년 47.1%, 2012년 42.8%로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2013년 47.8%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인조 대리석 상품의 주 공급처인 한샘의 부역 매출이 지난해 30% 정도 증가함에 따라 제품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샘이펙스는 특수관계자외의 내부거래가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한샘이펙스의 최근 5년간 내부 매출액은 총 1270억8293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이 1945억1862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매출의 65%가 내부 거래를 통

한샘이펙스 내부거래 추이 단위: 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349억3402만	354억3294만	564억2159만	628억421만	614억4586만
내부매출	234억8215만	208억2519만	265억9542만	268억4428만	293억3589만
내부거래비중	67.00%	59%	47%	43%	48%
순이익률	9%	4%	5%	-3%	3.00%



해 이뤄진 셈이다. 특히 한샘은 한샘이펙스 전체 내부 매출액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한샘이펙스의 주요 주주인 최양호 한샘 회장과 오너일가는 내부거래 매출을 통해 쫄쫄한 이득을 올리고 있다.

한샘이펙스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최 회장은 최근 5년간 내부거래로 18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의 자본율은 41.28%로 내부거래 매출액과 같은 해 순이익률을 고려했을 때 최 회장은 18억7200만원 정도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계산된다. 지난해의 경우 최 회장은 내부 거래 매출이 1억원 발생할 때마다 249만원의 이득을 봤다.

한샘이펙스는 주방가구와 인조 대리석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경영진과 오너일가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구조다. 한샘은 2008년 보유 지분 31.77%를 최양호 한샘 회장과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의 딸인 조은영 씨에게 넘기며 한샘이펙스

를 종속회사에서 탈퇴시켰다. 은영씨는 한샘의 지분을 흡수해 자본율이 6.32%에서 35.52%로 늘어났다. 아버지만인 조 회장의 지분 5%를 합치면 40.52%다. 최대주주는 지분 41.28%를 보유하고 있는 최 회장이다. 강승수 한샘 부사장 역시 지분 8.58%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다.

한샘이펙스는 관계사를 통해 매출을 올린 뒤 지난 2010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주주들에게 고배당의 배당금을 나눠주기도 했다.

한샘이펙스는 2010년 1주당(총 31만주) 5000원씩 총 15억5000만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무려 98.82%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6억3992만원, 은영 씨는 5억5060만원, 강 부사장은 1억3300만원, 조 명예회장은 7748만원을 챙겼다. 2011년 한샘이펙스의 배당성향은 55.43%에 달했으며 순손실을 기록한 2012년을 건너뛰고 지난해에도 30.41%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조승예 기자 sysy@

광림 ‘특장車 완성품’ 중국 수출길 열렸다

FTA 관세혜지로 수출비중 5년내 30% 상승 예상

광림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크레인과 특장차 수출의 활로가 열렸다. 그동안 관세로 인해 사실상 완성품 수출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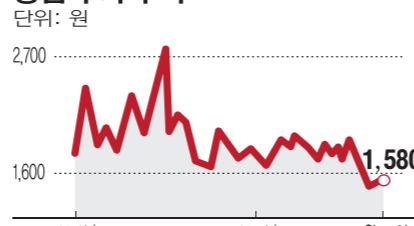
20일 광림 관계자는 “현재 크레인 등 특장차는 중국에 수출할 때 수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관세를 냈다”며 “사실상 완성품 수출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FTA 타결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수출비중이 3년내 10%, 5년내 30% 정도로 완성품 수출의 활로가 크게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 덧붙였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코리아나, 위노바, 산성엘엔에스 등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런 가운데 크레인 및 특장차 제조업체인 광림은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다.

광림은 이미 지난 2002년 중국 현지에서 합작 투자한 광림특장차 유한공사를 통해 현지에서 재료를 구입, 일부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다른 경쟁사에 비해 중국 시장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FTA 타결로 중국 현지 생산품 공급과 양질의 국내 생산 크레인 및 특장차 완성품을 무관세로 수

광림 주가 추이 단위: 원



출하게 됨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을 이종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회사측 설명이다.

박원준 광림 부사장은 “이번 FTA 타결로 다양한 공급체계를 통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중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



쌍용양회 주가 추이 단위: 원



쌍용양회 “태평양시멘트를 설득하라”

채권단, 1대주주 우선매수청구권 가능성에 일본행

쌍용양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채권단이 주요 주주인 일본의 태평양시멘트 설득에 나섰다. 태평양시멘트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매각에 차질을 빚자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는 것이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은 태평양시멘트의 우선매수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일본을 방문한다. 쌍용양회 지분 매각에 참여하고자 설득하기 위해서다. 태평양시멘트는 그동안 쌍용양회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산업은행이 일본을 다녀오면 태평양시멘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쌍용양회는 최근 산업은행(13.81%), 신한은행(12.48%), 서울보증보험(10.54%), 한양컴퍼니(10%) 등이 보유지분 총 46.83%를 매각키로 결정하면서 M&A 시장이 나왔다. 하지만 1대 주주인 태평양시멘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했다. 이 때문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여부가 결정될로 등장한 것이다.

태평양시멘트는 쌍용양회 지분 32.36%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우선매수권(ROFR) 혹은 매수권(ROFO)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채권단은 지난 2005년 쌍용양회 출자전환을 추진하면서 태평양시멘트가 요청하면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래서 우선매수권이 복병으로 등장한 것.

반대로 채권단은 태평양시멘트의 지분을 함께 팔 수 있는 태그일통(동반매도권)이 없다. 서로 문서화 된 옵션이 없기 때문에 매각이 매끄럽게 진행되려면 채권단과 태평양시멘트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 M&A 관계자는 “태평양시멘트가 지분 매각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메가박스처럼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며 “채권단 지분을 인수하는 쪽이 최대주주가 된다고 하지만 50%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리스크가 없는 동양시멘트에 관심을 갖는 인수후보자도 있다”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

파세코, 올해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

파세코는 2014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우수한 제품 생산, 서비스, 고객만족, 경영성과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파세코는 올해로 12년 연속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10년 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공로를 인정받아 완제품 제조 중소기업 중에는 최초로 명예의 전당 헌정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1974년 창립한 파세코는 현재 난로, 가스스토브, 히터 등 열기가전과 김치냉장고, 제습기 등 생활가전, 가스투김기, 식기세척기

등 업소용 주방가전 각 분야에서 선도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석유난로 및 캠핑용 난로 부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기준으로는 석유난로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유일한 대표는 “장립 이래 지금까지 약 40여년 간 큰 위기 없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올 수 있었던 핵심 구간이 바로 기술력”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아이비티 비타민C

대형병원·피부과서 판매

현대아이비티의 피부용 비타민C 제품이 내년부터 국내 대형 종합병원과 피부과 의원 등에서도 본격 판매된다.

현대아이비티는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피부용 비타민C 브랜드 ‘타브리드C’ 병원용 제품개발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전국 대형 종합병원과 피부과 병의원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대아이비티 타브리드C 제품은 다국적 제약회사 알보젠의 자회사인 근화제약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전국의 약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병의원까지 판매망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의료계 전역에 타브리드C 열풍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엔 개발된 병원용 타브리드C 제품은 의료계 특성을 감안해 기존 과우더형을 포함, 다양한 제형의 제품으로 상품화될 예정이다.

현대아이비티와 근화제약은 내년초부터 공동으로 대규모 광고·마케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병의원 제품판매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에 현대아이비티의 일본 파트너이자 일본 최대 PR마케팅 그룹사 ‘벡토르’도 내년 초부터 타브리드C 제품의 제형을 기존 과우더 제품 뿐만 아니라 과우더이전과 보습제 등으로 다변화하고 TV광고 등 대대적인 광고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대아이비티 오상기 대표는 “한국 의 근화제약과 일본의 벡토르사가 타브리드C 제품을 내년 주력상품으로 집중 판매하겠다고 나선 것은 올해 타브리드C 제품을 테스트 해 본 결과 제품효능과 시장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졌다는 증거”라며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광고와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해 타브리드C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알리고 판매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이비티는 차세대 바이오 융합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서, 피부에 바르는 타브리드C 과우더 제품 ‘타브리드C’를 개발해 한국과 일본 홍콩 등에 시판하고 있다. 또 DNA 및 항암치료제 관련 나노융합기술을 상용화 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있는 바이오 기업이다.

송영록 기자 syr@

★혁신을 심습니다 창조경제가 자랍니다



작고 작고 작은 혁신에
누군가의 상상력을 더하고,
누군가의 지식을 보태고,
누군가의 기술로 실현하면
우리 모두의 놀라운 미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 아닐까요?

**작은 혁신들을 모아 큰 미래를 일구는 일
SK이노베이션의 혁신으로 시작합니다**

혁신을 > 혁신하다 > **SK** 이노베이션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석유, 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역량을 융합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별화된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세종 창조마을 시범사업

태양광 에너지 등 첨단기술이 농촌과 만나는 '세종 창조마을 시범사업'. 삶의 질이 높아지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갑니다.